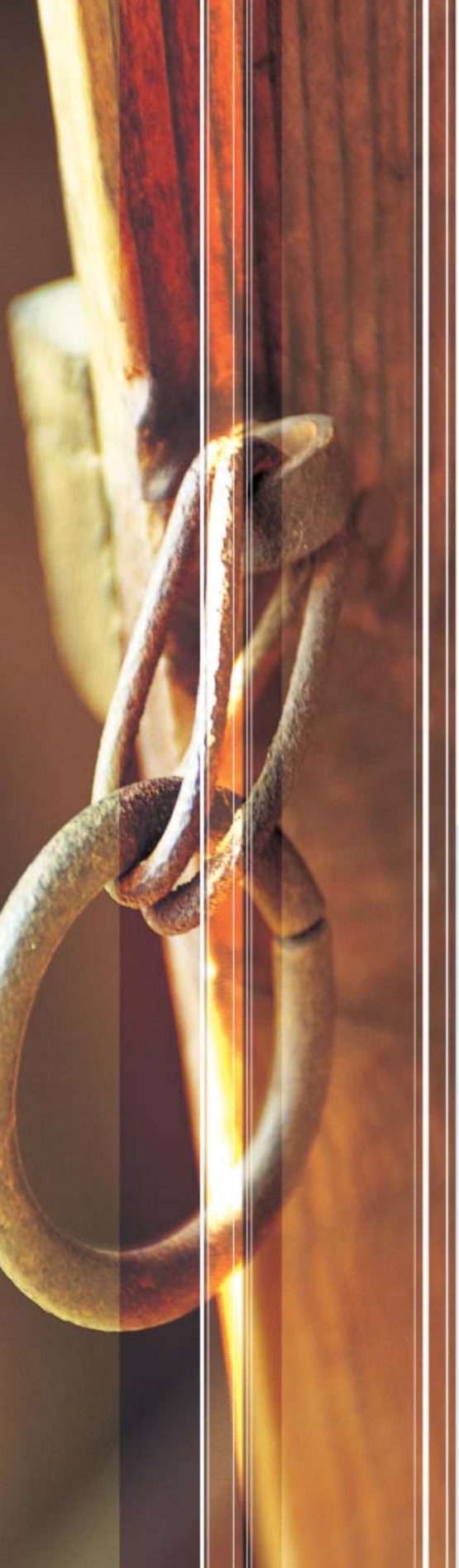


우리문화

2003.7

특집 참여정부와 지역문화 활성화

특별기획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상임이사 대담기사

문화자치단체장을 찾아서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

전국문화원연합회

"마을마다 성황사가 있어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는데 강릉에서는 제사 지내는 외에 색다른 일이 있다. 매년 4월 15일에 본부의 호장이 무당을 거느리고 대관령 산 위에 있는 신사에 가서 고하고 무당으로 하여금 나무에다가 신령을 구하게 된다.

나무에 신이 내려 그 가지가 저절로 흔들리게 되면 신령의 뜻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며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힘 센 젊은이에게 들고 오게 하는데 이 행사를 국사의 행차라고 말한다.

5월5일이 되면 무당들이 각색의 비단을 모아 고기비늘과 같이 오색이 찬란하게 하여 장대 끝에 매달아 우산을 드리운 듯 한 회개를 만들어 힘이 센 사람에게 들려 앞세우면 무당들이 풍악을 울리며 따르고 창우배들이 잡희를 하다가 저물면 성남문을 나와 소학전에 이르러서 그 놀이를 그친다. 이와 같은 마을의 풍습은 항상 그렇게 해 왔고 그 역사도 퍽 오래되었다고 한다. 만약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비바람이 곡식에 피해를 주게되고 금수의 피해가 있다고들 한다."

– 강릉향토지 『임영지』 중에서 – 〈본문 45P 참조〉

7 2003 JULY

우리문화

C O N T E N T

복간사 2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 말자 권용태

문화솟대 4 문화밑변을 굳건히 하자 유경환

초대석 7 이달의 신작시 신달자

특집 9 참여정부와 지역문화 활성화 박인배 외

특별인터뷰 22 경기도문화예술회관 홍사종 관장

특별기획 / 나눔의 문화 26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 상임이사

문화자치단체장을 찾아서 30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

나의 문화 34 나의 암송 습관 문용린

우리문화 바로 세우기 36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조명 필요 이서행

법고창신 40 기가 올라오는 황토 주강현

세대교감 44 이만희 원장과 최정학 원장의 대담

우리문화 역사마을만들기 48 문화 역사마을 만들기의 의미 이종인

축제를 찾아서 51 강릉 단오제 조상원

지역문화네트워크 54 각 지역의 문화원 소식 및 행사 동정

지상중계 61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대안제시 토론회 외

회의 진행법 70 회의도 경쟁력이다 김점동

통권156

월간
정가 3,000원

발행처
전국문화원연합회

등록
라36627(1984.7.12)

발행겸 편집인
권용태

편집주간 / 채강희
편집부장 / 박전걸

디자인 인쇄
한컴닷컴 2277-7411

題字 / 선우 이무희

본지는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kccf.or.kr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 말자

– 문화원의 틀은 바뀌져야 한다 –

글 ·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오늘 한동안 발간이 유보되어 왔던 월간 『우리문화』를 복간하게 됐습니다. 월간 『우리문화』가 문화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제 아래 한국문화 전반에 관한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전문지로서의 역할과 문화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전국 문화가족의 길잡이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정보혁명과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맞으면서 그 물결이 무섭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격동의 대전환점에서 우리는 더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시대적 요구

일찍이 저의 연합회장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문화는 전통문화의 단순한 보존이나 고수만을 통한 박제화 된 문화가 아니라 생활문화의 확장과 더불어 문화의식 변화에 따른 국민의 문화수

요와 욕구를 수용해 나가야 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에 우리 지방문화원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체질의 변화는 물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는 자생력의 확보란 어렵습니다.

기업의 미래가 인력에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 지방문화원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요체도 바로 지방문화원장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임을 유념하여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결단과 분발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문화원 가족의 헌신, 높이 평가

그동안 열악한 문화환경 속에서도 우리문화는 내가 지킨다는 소명 하나로 향토문화의 발전과 향토사의 전승 보존 등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남다른 정열을 쏟아 온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평가받아야 하겠으나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과감히 적응하려는 자기 혁신의 부단한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과감히 적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 연합회 내에 한국문화정책연구소(가칭)의 설립을 검토하고 공론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기 혁신의 부단한 노력 절실

이렇듯 변해야 산다는 것이 디지털시대의 키워드인 이상 변화를 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에는 두려움도 수반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제에 문화정보지로서의 「우리문화」가 시대조류의 물결을 헤쳐나가는 향도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체제와 내용으로 출발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문화가족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뜻에 보답하고 당면한 문화위기를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재삼 다짐하는 바입니다.

'문화밑변' 을 굳건히 하자

– 우리역사 전통적 가치 존중으로 가능 –

글 · 유경환 |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사람들은 산을 간단히 묘사할 때 세모꼴을 그린다. 청산을 그리라고 하면, 푸른 세모꼴을 그리기 일쑤다. 여기서 산의 이미지는 세모꼴로 집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안정된 사회를 도식으로 그릴 때, 역시 세모꼴을 인용한다. 밑변이 긴 세모꼴일수록 안정된 사회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세모꼴의 밑변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가.

사회 세모꼴의 밑변은 문화를 암시한다. 건전한 문화의 밑변을 깔고 있는 세모꼴이라야 안정된 놀이를 치켜올릴 수 있다. 문화밑변에서 꼭지점까지, 한 변은 경제(생산)이고 다른 변은 정치(제도)이다. 경제와 정치는 길고 든든한 문화저변의 두 끝에서 꼭지점과 연결된다.

지방의 서원에서 지방의 유지(有志)들은 스스로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자임하고 나서서 어른의 일몫을 해냈다. 물론 서원의 병폐도 있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담론을 통해 △지켜야할 일 △해내야 할 일 그리고 △타일러야 할 일들을 공개적으로 설득, 이른바 민심(民心)을 이끌어나갔다. 민심이 천심(天心)이라는 천심은 이렇게 사회의 방향과 안정을 도모하는데 나침반의 일을 제시했었다.

사회변동 변수 중 기초는 문화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얼마나 든든한 문화저변을 기초로 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삶터가 안정된 삶터를 이룩하려면, 먼저 안정의 기초조건인 문화밑변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사회를 움직이는 변수(變數)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변수는, 사회 세모꼴의 밑변이기 때문이다. 밑벽돌을 든든히 놓은 건축일수록 크고 높다. 마치, 산세(山勢)가 웅장한 산이 거느린 산뿌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저변은 얼마나 든든한 문화밑변을 기초로 깔고 있는가.

문화란 지역마다 다른 삶의 양식(樣式)인 동시에 그 양식을 이룩해낸 지혜이다. 그래서 흔히 지역문화를 가리켜 그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만인(萬人)의 지혜라고 말한다. 만인이 쌓아온 지혜, 이의 집적(集積)이 곧 전통이다.

우리는 곧잘 전통을 깊게 흐르는 장강(長江)의 유연한 흐름에다 비유하여 설명한다. 잘 드러나지 않으나 오랜 시간과 공간이 만드는 하구(河口)의 삼각주처럼, 흐름이 다른 흐름과 만나거나 저항을 받을 때, 전통은 분명하게 노출된다.

흐름이 다른 흐름과 만나거나 저항을 받는 지점은 바다와 가까이 만나게 되는 하구이거나 또는 두 흐름의 물줄기가 만나게 되는 '양수리' 같은 곳이다.

지난 '대선' 통해 새로운 흐름 확인

우리는 지난번 치룬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흐름에 변화가 왔음을 인지(認知)하게 되었다. 한줄기의 유연한 흐름만이 아닌, 새로운 흐름과의 만남이 물밑에서 쌓아 올라오고 있음을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새로운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새 세대가 지니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認識)이다. 만일 그들이 전통문화를 만인의 지혜라는 인식 대신, 낡은 절간의 단청처럼 고색이 창연한 것쯤으로 인식한다면, 사회 밑변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사회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의 어른들이, 어른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일목, 곧 당연한 역할과 구실을 자임(自任)하고 나서야 할 사회책임이 부각되는 것이다. 어른이 목소리를 내는 일은,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런 일을 남의 일이라고만 여기면, 둑의 저쪽 안 보이는 곳에 작은 구멍이 나서 제방의 한 쪽구석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침수현상이 오는 것과 같은 현상이 사회 곧 우리 삶터에 닥치게 마련이다.

"사회지도층 제 목소리를 내어야"

사회세모꼴의 밑변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새 세대의 사고방식이 서툴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설득효과에 초점을 두고 어른들이 어른의 일몫을 해야만 하겠다.

예를 들면 새로운 세대에게 우리나라 도처에 자리 잡고있는 서원(書院)을 차례로 둘러보게 하는 '서원 순례' 같은 프로그램도 운용할 수 있다. 고려왕조나 조선왕조시대, 그 많은 부조리와 개혁대상이 산적한 시대였지만, 그래도 각기 5백년씩이나 사직을 지탱해온 그 정신적 기둥은 어디에 놓여 있었던 것인가. 이를 직접 순례라는 체험교육(field study)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이끄는 것이다. 각지에 보존된 서원은, 바로 선대(先代) 지식인의 토론이 이루어진 교육장이었다.

근대적 교육양식이 118년 전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우리 삶터에는 글방→서당→향교→서원→성균관이라는 계층적 교육기관이 존재했었다. 이런 계통적인 상위 교육현장인 서원에서 전개된 담론은, 당시 사회세모꼴의 문화밑변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유지시키는데 대단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지방의 서원에서 지방의 유지(有志)들은 스스로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자임하고 나서서 어른의 일몫을 해냈다. 물론 서원의 병폐도 있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담론을 통해 △지켜야할 일 △해내야 할 일 그리고 △타일러야 할 일들을 공개적으로 설득, 이른바 민심(民心)을 이끌어나갔다. 민심이 천심(天心)이라는 천심은 이렇게 사회의 방향과 안정을 도모하는데 나침반의 일을 제시했었다.

위에 예시(例示)한 서원순례단 조직과 운영은 한가지 본보기일 뿐이다. 방법론(方法論)에 대한 연구는 추가로 할 수 있다.

선별 선택적 부정은 개혁의 출발점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를 구축할 수 있었던 그 하부구조에, 민족의 지혜가 밑벽돌로 놓여질 수 있었던 것은, 전해내려 오면서 이어진 전통적 문화가치를 존중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바로 이 전래된 문화가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만이,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사회세모꼴의 밑변, 곧 문화밑변을 굳건히 제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일괄부정(不定)이 아닌 선별적 선택적 부정은,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전면부정은, 개혁의 전제까지 부정하는 것이므로, 논리상 모순과 만나게 된다. 어른들이 해야할 일몫은 바로 여기에 드러난다. 일괄부정이나 전면부정이 아닌, 선별적 선택적 부정이 지혜로운 것이며, 아울러 가치 있는 태도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몫이다.

사회 세모꼴의 밑변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하부구조를 이룩해야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터는 필요에 따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정체성(正體性)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각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한가지로서 그대로 포개지는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다.

엉겅퀴꽃

신달자

넘보지 마라!
세상이 막아서는
사내 하나를
일흔 낮 일흔 밤의
핏덩이 난산으로
내 몸에서 쑥 빼 내어
눈 따악 감고 내다 버린 곳
잊혀지며 퍼렇게 멍들어 핀 꽃
엉겅퀴꽃

그러나 버린 만큼 불어나
내 몸 속에 다시 들어 와
죽으면 죽었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
옷도 가시로 둘러 입고 서서
세상의 손가락질 다 받으며
외곽에서도 구석진 곳
남들과 섞이기도 어색하기만 해서
외톨이로 외톨이로
퍼렇게 멍든 웃음 지우며 사는
조금은 초라해도 당당히 어깨 피는 꽃
엉겅퀴 꽃

신달자 시인은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숙명여대 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89년도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했다. 평택대학교 교수에 이어 현재 명지전문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시집에 「아가」, 「시간과의 동행」, 「아버지의 빛」 등 다수 있으며, 산문집에 「백치애인」, 「시인과의 사랑」, 「그대에게 줄 말은 연습이 필요하다」, 「고백」 등이 있다.

귀천(歸天)한 이 시대 '참 소리꾼'

글 · 박전걸 기자

故 박동진 명창

국악 사상 판소리 완창 시대를 연,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이라는 칭송을 받던 박동진 명창이 지난 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그는 걸쭉한 입담으로 청중을 사로잡았고 유장하고 힘찬 소리로 청중들의 가슴을 뒤흔들게 만든, 한 시대를 풍미한 국악계의 별이자 '스타'이자 판소리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같이 성취한 보기 드문 '행복한' 예술가. 지난 68년 5시간에 걸쳐 '흥보가'를 국악 사상 최초로 완창해 그때까지 명맥만 유지하던 판소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선구자이기도 했다.

이듬해 '춘향가'(8시간), 70년 '심청가'(6시간) '변강쇠타령'(5시간), 71년 '적벽가'(7시간), 72년 '수궁가'(5시간) 등을 잇달아 완창했다.

박 명창 이전에는 완창보다는 20~30분짜리 토막소리가 일반화 돼 있었다. 당시 박 명창의 완창 무대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 공연을 중계하면서 '한국전통음악계의 특이한 사건'이라는 평을 했을 정도.

예수전' '이순신전' 등 창작 판소리에도 많은 노력

박 명창은 이에 그치지 않고 창작 판소리에도 많은 힘을 쏟아 '예수전' '이순신전' '팔려간 요셉' 등이 그의 노력으로 태어났다.

92년 제약회사 TV CF에 등장해 그의 구수한 입담으로 외친 "제비 몰러 나간다"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여"는 한동안 세간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그의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여'라는 방송 멘트는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는 98년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도 국립국악원에 새벽같이 출근해 후학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고, 그 해 고향 공주에 판소리전수관을 지어 후학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었다.

신문사 게시판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음을 가다듬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seop8258), '제 생애 다시 못 볼 명인, 장인'(funcine) '정말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임을 알려주신 위대한 분'(jds7715) '시골의 군민회관까지 오셔서 구수한 입담과 소리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알게 해주신 분'(mhp1157) 등 추모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 1916년 7월 충남군 장기면 무릉리에서 출생
· 1934년 정정렬 선생 판소리 춘향가 사사
· 1935년 유성준 선생의 판소리 수궁가 사사
· 1936년 조학진 선생 적벽가 사사
· 1937년 박지홍 선생 판소리 흥부가 사사
· 1952년 해남국악단 무대감독
· 1962년 국립국악원 국악사 취임
· 1968년 국내 최초로 '흥보가' 5시간 완창
· 1972년 창작 판소리 '이순신 장군' 발표
·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적벽가 예능보유자로 선정
· 1973년 국립창극단 단장 취임
· 1980년 은관문화훈장 서훈
· 85년 국립국악원 지도위원
· 국립극장 명예종신단원
· 1996년 방영일 국악상 수상
· 98년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건립 (충남 공주시 소재 041-856-7770)
· 2000년 KBS국악대상 수상

참여정부와 지역문화 활성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기대치가 높은 만큼 지방분권과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담론 생산이 한창이다.

문화단체들의 각종 토론회가 줄을 잇고 지역문화 육성에 대한 건의 등도 봇물이다. 문화의 분권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 지역문화의 창출 방안, 지원 방식의 개선 등등.

이번 호 특집으로 '참여정부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마련하고 지역문화 개선과 활성화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편집자〉

참여정부의 지역문화정책

글 · 박인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기획실장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주요한 국정지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기가 쉽게 이루어질 리는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공약이 제시되자 수도권 민심이 잠시 술렁거렸던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시민들에게 그런대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마도 포화상태에 이른 중앙 집중의 폐해에서 벗어나고픈 충동에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강남의 땅값, 집값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 자꾸 벌어질지도 모른다.

서울 집중은 문화왜곡 관점 전파

'문화의 지방분권'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의 '중앙 집중' 논리가 존재한다.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 중에 '광주문화수도'에 대한 것이 있었다. 광역시 · 도별로 그 성격을 특화하여 서울-경제수도, 부산-해양수도, 충청권-행정수도가 된다면 광주는 '문화수도'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재빨리 「문화수도육성기본방안」(2003. 1)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부 및 산하기관 청사의 광주 이전을 비롯하여 현재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국립 문화예술 시설들을 광주로 이전하거나 상응하는 시설들을 설립한다는 것 등이었다. 타당한 계획들도 많이 있었지만 자칫 광주로 집중된 문화수도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문화는 어떻게 되나? 문화는 지역에서의 생활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에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모아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서울이 문화의 중심지

지역분권과 연계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사고방식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한다. 서울에서 또는 그 이전에 뉴욕이나 런던 · 파리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문화예술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간 지역문화정책의 많은 부분은 서울에 있는 것과 유사한 문화기반시설을 자기 지역에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과 똑같은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을 지어 놓았다고 해서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었다.

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문화 집중과 더불어서 문화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전파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분권과 연계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사고방식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한다. 서울에서 또는 그 이전에 뉴욕이나 런던 · 파리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문화예술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간 지역문화정책의 많은 부분은 서울에 있는 것과 유사한 문화기반시설을 자기 지역에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과 똑같은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을 지어 놓았다고 해서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덩지 큰 시설들이 유지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된 예가 더 많다.

말이 좋아 '지역문화 활성화'이지 자칫 여기에 잘못 편승하였다가는 한계에 도달한 중앙 집중 문화의 배설물만 뒤집어쓸 위험부담 또한 없지 않다.

노무현정부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자율적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각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모색하고 이러한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 대학과 문화를 육성하여 상호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지역특성화'는 전통과 역량 검토돼야"

지역특성화는 주로 산업의 측면에서 지역간 분업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 그 산업

의 범주 속에는 문화 · 관광산업도 당연히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 어떤 종류의 문화산업 집적지구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자율적 역량 등이 검토된 이후에 정해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자율적 논의구조 속에는 산 · 학 · 연 · 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물론 당장은 위와 같은 지역정책을 논의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도 부족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이다. 여기에 한 방안이 지방대학의 자체발전계획과 지역특성화발전계획을 연계하여 대학은 특성화된 부분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고, 여기서 배출된 인력들이 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문화 관련학과들과 산 · 학 협동 개념의 공동작업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 문화활동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지역문화행정가 양성, 지역문화사업의 평가와 감리, 주민의 문화향수실태조사 등의 지자체 사업에 그 지역의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인턴제, 공공근로 문화분야 인정 등)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고, 또한 대학의 시설을 지역공동체의 부족한 문화예술센터로 공유하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방문화원의 운영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전국에 213개 문화원 중에는 지역주민들 속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곳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다. 여기에 위와 같이 대학의 머리(두뇌)를 접맥할 수 있다면 최소한 새로운 변화의 기풍은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역공동체 삶 향상이 문화역량 척도"

지난 95년 지자체 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기 시작한 이후부터 전국 지역축제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바 있다.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우수한 문화관광축제를 선별하여 지원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민선단체장들이 축제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했기 때문에 서로 프로그램경쟁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어떤 축제에서 성과가 좋았던 프로그램은 금방 다른 곳에서 모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 특성이 명확하거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함부로 모방할 수가 없다. 그러한 특성화를 이루는 데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문화적 역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 지역간 편차가 커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한 지역과 소모성 문화행사를 모방만 한 지역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중앙 집중의 문화구조 속에서 영원한 변방으로 푸념만 늘어놓고 있느냐, 아니면 탈중심의 지역문화 형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삶을 향상시켜 나갈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더욱 커지리라고 본다.

분권의 과정에서 특성화의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느냐는 지역간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으로 편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되돌리는 분권화의 과정에서 1등만이 능사는 아니다.

광주시의 문화수도육성기본방안에서와 같이 또 다른 편중을 지향한다면 분권화의 기본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간의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바로 문화적 역량의 발현에 해당될 것이다.

삶의 질 높이는 문화운동 전개하자

글 · 김 종 문학박사 광주 서구문화원 원장

최근 활발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경제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그것의 필요성보다는 거기에서 얻어진 감동이나 즐거움을 산다고 한다. '쥐라기 공원' 이 인기를 끌자 패스트푸드 기업에서 햄버거에 공룡인형을 끼워 팔아 매상고를 올렸던 것처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모든 산업에 빠짐없이 스며들고 있다.

문화원의 각종 프로그램도 이 같은 추세의 반영인지 최근의 트렌드에 맞추어 감성세대에 호소할 수 있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요소와 함께 그렇지 않은 모든 진지한 요소들이 결합하여야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도시문화원으로서의 새로운 활동방향이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정책은 문화제, 예술제(축제포함)부분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이 두 번째이며 문화재 발굴과 보수, 문화예술 분야의 시설확충, 문화의 거리나 광장의 조성 등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하는 '문화' 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유형' 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전시적 성격의 문화사업에 예산의 지

“문화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

출이 치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문화예산 지원의 방향이 경직성 경비부담보다는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전문창작인 지원, 문화원의 조직구조화와 전문화, 네트워크 시스템 등 ‘휴먼 웨어’를 고려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문화예산 지원 ‘휴먼 웨어’를 고려해야”

지방문화원의 지원체제는 열악하다. 그러나 지방문화육성과 보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에 깔고 지방문화원 종사자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점차 튼실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더불어 차별화 될 수 있는 지방문화의 정체성이 요구되는 세기이다. 지방문화원 역시 그 역할에 있어 전문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방법적 차원에서 우선 문화원 단위로 문화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설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행정에서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학계-산업계-문화예술계-관’의 협력 시스템을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행정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문화원 중심으로 연계한다는 의미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가꾸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운동을 지역문화원이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그간 중앙중심의 문화발전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에 대한 상품력과 이미지를 창출하는 일이 된다. 도시는 도시답게 농촌은 농촌답게 지역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다.

“문화원, 문화예술계·학계·관계 중심축 역할”

다음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충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 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문화는 전통적이거나 특수한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에서 탈피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설분야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문화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사실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충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 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문화는 전통적이거나 특수한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에서 탈피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설분야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문화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사실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문화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문화교육,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능동적 플랜이 세워져야 한다.

있다. 문화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문화교육,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능동적 플랜이 세워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제5차 전국종합계획을 세울 때 '문화와 생활양식 위원회'에서 '가든 아일랜드 닛폰' 이란 21세기 국토상의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서 "21세기에 일본이 역사와 풍토적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을 창조해 일본인이 정말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일본의 국토가 아름다울 수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일본인의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개념과 문화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의 지역적 문화정책은 이제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문화원의 재정 자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의 자원을 상품화로 만드는 기획력과 마케팅에서 지방문화원이 주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 무형의 문화유산을 상품화하는데 문화원의 축적된 전문성이 연계돼야 한다. 지역전통음식의 조리법이나 전통놀이 특산물에 대한 정보, 생활문화의 발굴 등 디지털 문화시대에 지방문화원의 정보화를 통해 전문문화포털 사이트 운영과 문화재 관련 정보, 문화교육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며 중앙 일변도의 문화정책이 실질적 문화분권으로 공연, 시설, 산업 등 전반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문화원장의 전문성 제고 필요

문화관광부와 조율한 지역문화원의 불합리한 여러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에서 일선 행정 시스템에 시달하면 종전에 문화원을 폄하하기 위해 만든 표현인 사회단체, 관변단체 등의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집행적 차원에서도 일선 문화원장이나 자치단체장 등이 의회와 충돌하는 일 또한 줄어들 것이다.

지역문화원의 지원에는 광역단체 내지는 기초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그 규모에 차이가 크다. 여기에다 문화원은 일부 문화원장들의 전문성 결여로 그 동안 문광부 등 지원부서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홀대를 당해 온 게 분명하다. 문화원장의 경륜과 능력이 하루아침에 높은 수준에서

유형 · 무형의 문화유산을 상품화하는데 문화원의 축적된 전문성이 연계돼야 한다. 지역전통음식의 조리법이나 전통놀이 특산물에 대한 정보, 생활문화의 발굴 등 디지털 문화시대에 지방문화원의 정보화를 통해 전문문화포털 사이트 운영과 문화재 관련 정보, 문화교육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며 중앙 일변도의 문화정책이 실질적 문화분권으로 공연, 시설, 산업 등 전반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준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방안을 통한 개선과 지도를 연합회에서 선도해 가야한다. 아울러 제도의 시행이 보다 큰 문화의식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문화원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사랑방' 으로 친숙하게 다가가서 문화원을 찾는 이웃의 '정' 을 느끼게 해야 한다. 문화를 매개로 한 일정한 울타리 안의 사람들을 엮어주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자신과 사회를 위한 개성을 표현해 낼 수 있는 곳이 문화원이다.

이 시점에서 전국문화원 회원대회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 일은 '세계문화의 해' 에 시점을 맞추어야 했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동체적인 연대감과 화합을 보여주는 것이 문화제국주의의 여러 양상들에 적극 대응하는 문화인의 단결과 긍지를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문화제국주의는 문화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흡수되며 하나의 상품으로서 생산, 소비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불균형과 종속현상을 비판하자는 의도에서 제기된 개념이다.

물론 경제적 논리로 운용되는 오늘의 문화적 상황은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이해 관계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요컨대 세계화 시대에서는 '춘향전' 보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 '김홍도' 보다는 '피카소' 가 '빈대떡' 보다는 '피자헛' 이 '진돗개' 보다는 '미키마우스' 와 '피카츄' 가 더 친숙한 문화로 자리잡아 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 문화의 문화적 고유성과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범세계적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미래지향적 문화의 논리를 문화원운동으로 펼쳐 가야겠다.

지난 해 11월초 일본 도쿄 시내 간다(神田)라는 지역에서는 '제43회 간다 고서 축제' 가 열렸다. 간다지역은 오래된 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서점 300여 곳이 모여있는 세계적인 고서점가이다. 이 간다 고서 축제에 진열된 고서는 무려 100만 권으로 희귀본과 고서를 찾는 일반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니 우리의 축제문화에 비추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 21세기는 문화가 쌀독이 되어야 하는 시대다. 문화상품은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 이지만 '이미지' 도 함께 팔아야 한다.

지방문화를 새롭게 발견, 해석하자

글 · 최래옥 한양대 교수

문화란 여러 가지로 정의(定義) 할 수 있으나 간단히 말하면 그 시대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최선(最善) 최고(最高)의 생활방식(生活方式)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최고의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진선미(眞善美)로 살고 그렇게 슬기롭고 도덕적이고 심신이 건강한 지덕체(智德體)로 살고 최고와 가치 있는 부자로 살고 귀하고 출세하고 명예롭게 살고 이성(異性)에 대하여 매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자녀 교육을 하는 부귀색(富貴色)으로 살면 문화가 된다.

그리고 보는 눈은 중앙은 중앙대로 좋고 지방은 지방대로 좋아야 한다. 곧 공생(共生)이요 공리(共利)요 상생(相生)이어야지 어느 한쪽만 유리해서는 안 된다. 나쁜 것은 중앙은 좋고 지방은 나쁜 것과 중앙은 나쁘고 지방은 좋은 것이다. 그 중에도 제일 나쁜 것은 지방도 나쁘고 중앙도 나쁜 것이다. 결국 중앙에서도 이득을 보고 지방에서도 이득을 보는 관점이어야 된다.

이상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새로운 지방문화 창출이 필요"

구리시(九里市)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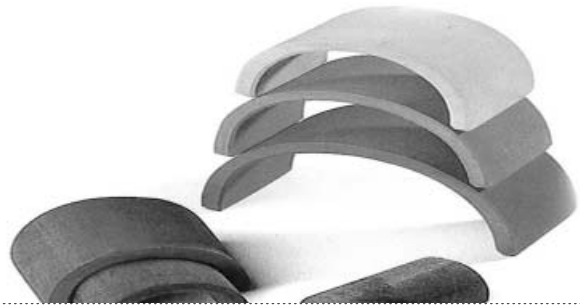
몇 년 전 경기도 구리시에서 구리시와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과 합동으로 '구리시 지방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를 토론할 때 내가 얘기한 내용을 다시 옮겨본다. 그때 구리시 인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울과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여기 사람이 구리시에서는 잠만 자고 돈은 서울에 가서 쓰고…. 엄청난 안 좋은 서울의 문화가 들어오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리시에는 내가 보기에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조선 역대 왕의 무덤이 있는 동구릉(東九陵). 역사 공부 현장이요 왕이 살던 서울 궁궐에 짝이 되는 사후 문화 보존 터라 현장 공부를 할 수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둘째로 아차산이라는 고구려 문화의 유적. 발굴하고 복원하고 조성을 하는데, 서울 근교에서 전봇대, 곧 전신주가 없는 산 속이라서 고구려나 확대해서 삼국을 관련지은 영화를 촬영하는데 제격이다. 연개소문(淵蓋蘇文)이 말을 달리고 전투를 하는 장면을 찍어 보라. 바로 경북 문경에서 고려 '태조 왕건' 을 텔레비전 사극으로 촬영하는 현장을 촬영지로 만들자 관광객이 몰려 문경 문화도 널리 알리고 수익도 올리고 있는 예가



있다.

셋째로 내가 석사논문 쓸 때 전설의 현장인 장자못(長者池)이 아차산 너머 한강가 수택리에 있다. 이것을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여 가꾸고 알리면 유익할 것이다.

이 구리시 경우는 서울에 빼앗기는 구리시가 아니라 서울을 빼앗아오는 구리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이 중앙을 흡수할 능력을 기르자.

충남 금산이나 전북 무주는 길이 크게 난 바람에 대도시 대전에 돈이며 교육이며 생활 방식이 다 기울어져서 고민을 하지만, 금산은 인삼제로, 무주는 무주만이 있는 자연 자산(自然資産)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은 대도시에 경제적으로 흡수가 되고, 대도시의 나쁜 문화가 침투한다는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자립하고 대도시에 좋은 점을 내보내야 한다. 지방문화는 중앙문화와 대결하면 진다는 패배의식이나 불리하다는 한탄은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서 외부 인사를 불러서라도 자문과 조언을 받아서 지방문화를 창출(創出)하여야 한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바라는 바이다.

"'있는 문화'를 잘 활용하자"

백령도의 경우를 들어 보자.

서해 오도의 하나요 우리나라 서해 바다 끝에 있는 섬이 백령도다. 1984년에 나는 백령도에 갔는데,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이려고 공양미 300석을 받아 몸을 팔아서 빠져죽은 인당수가 거기 있어서 심청전 현장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15년이 흐른 후 백령도 종합고등학교 백 교감(白 校監)이 오랫동안 조사하고 결의를 한 결과를 들어 옹진군수에게 간청해 옹진군에서는 지방문화로 삼겠다고 해서 심청각(沈淸閣)을 백령도에 짓기로 했다. 나는 '심청전 연구가'라는 이름으로 여러 교수와 같이 그 인당수 확인 작업을 했다.

지방에는 자기 지방 역사와 문학에 대한 전문가를 길러내야 하고, 있으면 활용을 해야 한다.

"심청전으로 돈을 번다고? 심청전 근거인 인당수가 거기 맞아?"

이렇게 사실, 또는 과학과 논리를 내세우면 아무 것도 안 된다. 기실 전설과 문학과 역사의 흔적은 어디나 있게 마련인데, 속담에 '개똥참외도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 그대로 먼저 선수를 쳐서 지방문화를 이룩해야 한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나의

것이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끄트머리라도 있는데 왜 가치가 없다고 하는가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장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없으면 길러내야 한다. 후계자도 길러내야 한다.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한다. 그리고 형편에 맞게 융통성도 있어야지 옹고집처럼 고집만 부려서는 안 된다. 지방문화를 육성하려면 부드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북 남원에서 춘향제를 몇 해 전에는 사월초파일이 춘향이 생일이라고 해서 초파일에 열었는데, 지금은 어린이날에 사람이 모이고, 모인 김에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에도 맞추어서 5월 5일에 연다. 이 춘향제는 고전소설도 훌륭한 지방문화이므로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장도 알리고 수익도 올리도록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까짓 것. 시시한 것, 별 볼일이 없는 것,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된 것, 미신 같은 것, 그것으로 무슨 일을 꾸민다고? 이것이 무슨 벌이가 된다고? 그 사람이 뭐 전국적으로 알려질 가치가 있냐고? 그런 옛날이야기며 그런 천한 백성이 부른 노래나 아이들이나 하는 수수께끼나 미신 같은 민간 속신(民間俗信)이 무슨 가치가 있어? 지방은 중앙에 예속이 되게 마련인데 무슨 살 재간이 있어?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 지방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 포기나 좌절, 자기 비하나 탄식은 지방문화에 독이라고 말해주겠다.

지방문화 살릴 인재 절실

그 고장 문화원(文化院)은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점을 극복해야 한다. 내 자식이 바보라고 하는 부모가 없듯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한다' 고 하듯이 무엇이든 우리 지방문화는 금지옥엽(金枝玉葉)이요 만금보화(萬金寶貨)라고 여겨야 한다. 문화원에 일하는 사람은 자기 지방문화를 알리는 광고인(廣告人)이 되고 역사를 알리는 학자(學者)가 되어야 하고, 전통문화를 교육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등, 눈과 손과 발과 입이 출중한 전능인(全能人)이 되어야 한다. 그 지방 문화는 그 지방 사람이 제일 잘 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잘 모르기도 하니까, 일제시대에 어느 시골에서 고려자기를 요강으로만 알고,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금강석으로 공기받기로만 하던 이야기를 보듯이, 지방의 보화를 알기 위하여서 중앙에서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내가 봉직하고 있는 한양대학교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데, 성동문화원에서 한양대학교 민속연구팀(팀장은 나)에게 성동의 설화, 민요, 놀이, 세시풍속, 구비문학, 지명, 민간신앙 등 『성동민속대관』을 수 년째 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중앙에서도 서울 토

박이와 지방에서 올라온 주민을 상대로 민속 조사를 하는데, 지방에서는 전부터 살아온 사람의 민속, 크게는 문화를 발굴하고 정리하고 알려야 한다. 당연히!

전남 목포대학교에 섬과 바다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소 팀은 도서문화(島嶼文化)를 조사 연구를 하고 있고, 나는 고맙게도 목포대 국문과 나승만 교수의 초청을 받아서 7월 중 그 도서문화 조사에 참가를 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보답으로 몇 가지 지방문화에 관한 조언을 할 생각이다.

결국 지방 문화의 가치를 알고 중앙에서라도 인재를 데려와서 활용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지방은 '지방문화' 답게 특색 살려야"

지금은 중앙이나 도시는 돈은 있지만 공기와 물과 교통과 쓰레기 등등에서 고생을 하여 근무 중에는 물론 은퇴 후에 지방에 가서 살고자 한다, 그러자면 지방은 중앙에서 흘러오는 문화, 인재, 재산을 받을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한다. 큰 나무도 그냥 두고, 산도 그냥 두고, 숲도 그냥 두어야 한다. 개발이나 발전이니 하는 것으로 지방문화를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중앙에 없는, 중앙이 찾는, 중앙이 아쉬워하는 것을 지방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앙과 같거나, 중앙 흉내를 내어서는 지방은 존립할 수 없다. 지방에 있는 학교를 크게 활용해야 한다. 한편, "우리 지방에는 이것이 자랑이랍니다"라고 하는 특징, 이른바 브랜드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도 지금 살아남기 힘든 것은 국내 대학도 국외 대학도 마찬가지라서 여러 모로 머리를 짜내고 있음을 참고할 일이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은 세계 각 국에서 사는 개구리 2만 마리를 일년에 수 십억 원을 들여서 기르고 있는데, 언뜻 보면 낭비요 무모한 것 같지만, "세계 어느 나라든 개구리 연구를 하자면 히로시마 대학을 오너라"하는 긍지와 실속이 있고, 방글라데시 칼카타에 있는 타고르 대학은 동양 미술의 본산이라는 미술대학이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예를 들더라도 지방은 지방다워야 하고 지방 문화는 중앙이 부러워하는 현장이어야 하고 특색을 살려야 한다. 국내에서 황소싸움, 나비축제, 반딧불이축제, 산속 공기, 삼림욕, 꽃잔치, 스키장, 인삼제, 풍어제, 고추장, 고도(古都) 문화 재현, 지방 문화 보고서 간행 등등 그 지방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은 반갑다. 바로 중앙이 못하는 일을 그 지방이 하는 것이다. 곧 상생(相生)하는 현장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문화향기가 구석까지 흐르게"

글 · 박전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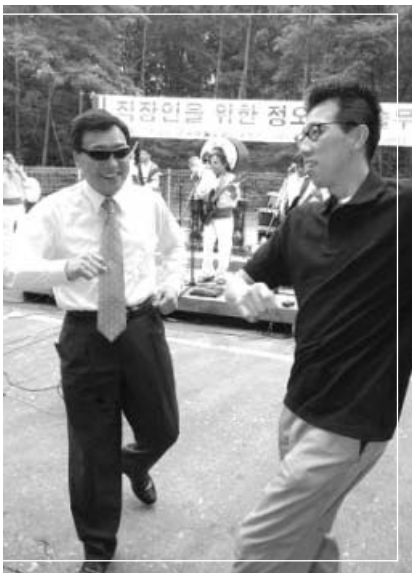
"사람은 명상하기 전에 꿈꾼다. 의식된 광경이기에 앞서 모든 풍경은 하나의 꿈의 경험이다. 먼저 꿈에서 본 풍경만을 미적 정열을 가지고 사람은 바라본다."

'아이디어맨'으로 널리 알려진 홍사종(洪思琮 · 47) 관장이 상상력의 한 원천에 기대고 있다는 프랑스 과학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가 그의 저서 「물과 꿈」에서 쓴 글이다. 바슐라르는 물 · 불 · 공기 · 흙의 이른바 '4원소(元素)론'으로 널리 알려진 '물질적 상상력'을 문예비평에 도입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었다.

바슐라르가 '문학적 상상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질적 상상력'을 길어 올린 것처럼 홍 관장은 지난 2월 부임이후 '모세혈관 문화운동'을 들고 나와 또 한번 문화충격을 주었다.

"우리 사회의 문화 공동화(空洞化)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시는 공급과 소비 과잉으로 동맥경화에다 영양과다 현상을 빚고 있지만, 농촌은 경제적 문화적 붕괴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문화적 소외가 심화돼 읍 · 면 · 동 단위로는 처참할 정도이지요."

◇ '모세혈관 문화운동'의 일환인 직장인을 위한 예술무대 공연 모습(아래)과 한 직장에서 공연때 회사원과 흥겹게 춤추고 있는 손학규 경기지사(오른쪽).



"농촌 문화 공동화 현상 심각"

맡은 일마다 참신한 발상으로 문화계에 화제를 일으켰던 홍사종 관장의 현실문화진단이다.

홍 관장은 "농촌에서도 각자 일터에서 일하고 귀가하면 TV와 문화소통을 합니다. 그러니 농촌 이웃간에도 한달 내내 얼굴을 못 보는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어느 초등학교에 갔을 때, 이웃끼리 '몇 달 만이냐'며 서로 안부를 묻는 광경도 있었습니다"면서 "과거 농촌은 일과 놀이가 함께 이뤄졌으나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면서 문화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며 농촌의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현상에 그는 무척 아쉬워했다.

그래서 시작한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일회성에 그치는 반짝 이벤트가 아니다. 홍 관장은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문화실천운동입니다. 지금은 실천가가 필요할 때지 이론만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예회관측은 이를 위해 전통무용, 국악, 민요, 사물놀이, 풍물을 비롯 연극, 대중음악, 영화음악, 클래식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이른바 '맞춤 공연'을 시작했다.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공동체 복원운동

공연장소도 다양하다. 읍 · 면 ·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마을회관, 학교 강당, 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넓게 퍼져있어 이동거리도 만만찮다. 또 지금까지 대규모 공연장에서 많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해온 전례에 비춰 예술단원들의 불만은 없었을까.

홍 관장은 공연장에서 하는 예술은 박제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농악 즉, 국악이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온 것은 생활 속에서 더불어 즐기는 생활문화이기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원들도 귀족적으로 변해 그런 곳에서의 공연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한 공연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공연하는 것을 처음 봤다'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목격한 단원들이 감동, 이후 모든

공연에 보람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홍 관장은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한다고 해서 격을 떨어트린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 향유를 통해 사회적 응집력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즉, 강한 문화의 힘은 향유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한 문화의 힘은 향유를 통해"

그는 "처음 모세혈관 문화운동을 시작할 때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으나 이 운동을 통해 공연 수준을 더 국제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문화운동은 △문화를 위한 문화운동 △사회를 위한 문화운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사회를 위한 문화운동은 사회의 공동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관장은 시민들은 "문화복지에 큰 감명을 받고 이에 대한 반응은 금방 돌아옵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런 의미에서 '문화행정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문화원의 역할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문화행정가 역할을 할 수 잇는 인재가 필요하고, 둘째, 농촌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읍·면·동 단위의 문화프로그램 보급이 시급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원은 인력 확보가 시급"

그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야합니다. 현장에서 문화운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기획해야 합니다"면서 문화원이 각지의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럼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렇게 해나가면 지자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전경과 작은 음악회 안대 포스터

> 지자체 단체장들도 지역개발이나 지역경제발전보다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행정이 보다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조언이다. 또 문화원이 그런 역할에 앞장서고 그에 대한 반응은 더욱 빨리 돌아오게 돼 있어 문화원이나 지자체 단체장들도 더욱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체의 관심 또한 커질 것이고 인력과 예산도 자연스레 모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원이 문화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단체장들도 지역개발이나 지역경제발전보다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행정이 보다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조언이다. 또 문화원이 그런 역할에 앞장서고 그에 대한 반응은 더욱 빨리 돌아오게 돼 있어 문화원이나 지자체 단체장들도 더욱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원이 문화행정 중심지 돼야"

그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야합니다. 현장에서 문화운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기획해야 합니다"면서 문화원이 각지의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럼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홍 관장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는 문화운동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주말마다 고향인 경기도 화성에서 땀 흘리며 농사일을 통해 건강성을 되찾는다는 그는 세종문화회관 재직할 때 회관 근처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분수대 음악회'는 문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또 재단법인 정동극장장을 맡았을 때는 3년만에 공연수익을 19배나 끌어올린 '문화행정 대가'로 통하기도 했고, 숙명여대 교수로 있으면서 전통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아트노'를 설립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유년시절 뛰놀던 산천을 상상만 해도 서정성과 그 풍광이 떠오르고 그 느낌이 아이디어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문화는 끊임없이 흐르는 동맥과 심장이어야 합니다."

※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신청하려면 경기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kyculture.or.kr)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박원순 이사와 인터뷰약속이 있던 날은 그 긴 여정 막바지인 서울 시내에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삼보일배'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 역시 일단의 '시민 참여 삼보일배'에 동참하고 온 후였다.

박원순 이사의 이마에는 초여름 햇살에 그을린 피부 사이로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이 삼보일배의 흔적 속에서 나눔 문화를 설파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을 만날 수 있었다.

세 걸음에 한번 절을 올리는 삼보일배의 고행. 삼보일배에서 걷는다는 일상적인 행위는 다음에 이어지는 한번의 절을 통해 경건해지고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일관된 마음을 품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갖게 한다. 몸을 낮춰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는 한 번의 절이 세 번의 일상적인 걸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어쩌면 나눔의 문화라는 것 역시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 방점을 찍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 한번의 '절'과 같은 것이 아닐까.

"나눈다는 건 신나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 상임이사

글 · 김보영 객원기자

1% 나눔으로 시작하는 '행복 만들기'

사실 자신이 소유한 무언가를 남과 나눈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지만 자선을 위한 기부액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단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한국인의 기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교적인 헌금이 1인당 21만원을 넘는 것에 비해 자선단체나 시민단체, 지역사회에는 5만1천원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주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 같은 척박한 토양에 박이사는 '아름다운 재단'을 심고 '아름다운 가게'를 일구고 있다. 성공한 사업가의 거액기부에서 한 푼 두 푼 저축해 전 재산을 학교에 기탁하는 할머니로 상징되던 우리의 기부문화 대신 일반인들이 참여해 재단을 운영하는 곳이 바로 '아름다운 재단'이다.

평범한 대기업 사원의 급여 1% 기부, 하루 일당 중 3천원을 기부하는 노점상, 어느 장애인의 장애인 보조금 일부의 매달 기부 등 아름다운 재단에는 우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나눔 만들기가 한창이다.

특히, 작년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는 넘쳐나는 기부 물품과 발디딜 틈 없는 손님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영국의 '옥스팜'과 미국의 '굿윌'에서 힌트를 얻어 설립된 아름다운 가게는 안 쓰는 물건을 기증받아 싼 가격에 되팔아 얻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야인시대 세트장에서 출연자와 부천시 관계자들의 기증품을 판매하는 경매행사, 법조계 인사들의 중고물품, 신세대 스타들의 애장품 기증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물품 기증과 판매는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그 쉽지 않은 나눔에 어떻게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을까. 박원순 이사는 "나눈다는 건 신나는 일입니다. 나눔을 해본 사람만이 그것이 주는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고 답한다.

그럴 것이다. 함께 나눌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행복이 존재한다는 뜻이리라. 그렇지만, 어쩌면 마음 한편에 있는 숨겨진 신명을 자극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눔 문화를 전파하고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과 계기가 없었다면 이 같은 행복감은 또한 쉽게 오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 기부자들이 보내온 물품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전시장.

'나눔 문화' 전도사

박원순 이사의 직업은 변호사였다. 그는 사회적인 명예와 경제적 안정감을 약속하고 있었던 변호사를 버리고 대신 나눔 문화의 전도사가 되었다. 서울대 법대 시절 학생운동에 가담해 겪어야 했던 교도소 경험이나 인권변호사 활동,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사회운동 경험과 1년여 외

국연수 생활을 통해 결국 그는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투신하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 시장에서 하지 못하는 제3의 영역으로서 견제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정부 견제 활동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점차 생활 내에서 의식을 바꾸는 '생활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박이사는 기업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착안해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고 사회 내에 뿌리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천민 자본주의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대세라고 강조한다. 즉, 이제는 시각을 바꾸는 운동으로서, 개인 삶의 의미와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의의를 두는 사회운동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지역공동체 살리는 운동 필요"

"나눔 문화는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와의 연대, 연계활동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맥락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박원순 이사는 유럽여행을 통해 새로운 공간, 건축에 삶의 메시지를 담는 '문화와 예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도시의 정체성과 전통에 기반해 마을의 문화이미지를 만드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운동, 도시 전체가 '책'을 테마로 꾸며진 헤이와이마을, 독일의 마을 벽화 만들기 운동 등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는 그 삶의 가치관이 묻어나는 문화예술이 환경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그. 더구나 인문학과 예술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임을 역설했다.

최근 참여정부의 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동체,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관계에 있어 박이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노대통령의 분권정책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커뮤니티란 단순 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농촌을 비롯한 각 지역이 자활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문화마을을 만들고, 생태도시나 교육도시 등 문화정체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문화적 요소가 지닌 다양성과 차별성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을 사러 온 고객들로 언제나 만원이다.

◇ 아름다운 가게는 대부분 자신의 시간을 출연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근무한다.

"문화원연합회와의 다각적인 연계도 필요"

"지역사회의 문화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문화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문화조직이 흔치 않은 것이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문화원이 적극적 문화네트워크로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지역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이사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문화적 감각을 지닌 곳이 되어야 진정 살만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역 문화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의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 아직 3호점까지 오픈 된 상태이지만, 점차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활성화된다면 보다 확장된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사업이 각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화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원순 이사의 힘있는 어조에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의 리더와 시민자치의 만남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담겨있었다.

앞으로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 가게는 소비가 생산을 주도하는 공동체 기업, 제3세계 빈민국과의 대안 무역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연관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갈수록 해야 할 일들이 더더욱 많이 보인다며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담아 그 만의 꿈과 열정을 이야기하는 박원순 이사.

그가 꾸는 꿈은, 단순히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전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능성을 자극하는 소중한 삶의 지표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사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씩을 실천하며 그 나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돈을 쓰는 사회,
그늘진 곳 없이 희망을 나누는 사회,
모두가 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공동체 사회
아름다운 재단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설립취지문 중에서-

'문화도지사'에게 듣는다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

이 글은 영주문화원 정지옥 원장이
지난 6월20일 이의근 지사의 집무실에서 나눈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 지사님께서는 평소 문화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우리 문화유산의 보전과 문화산업화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경북은 신라천년의 도읍지인 경주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의 본류(本流)를 형성해 왔으며, 민족정신의 중추를 이루는 안동, 영주를 비롯한 북부지역의 유교 문화유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잘 보존되어 있어 민족정신의 도장(道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고대문화의 원동력이었던 가야문화가 고령 · 성주지방을 중심으로 낙동강 중상류 서안지역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민족문화의 본고장이라 하겠습니다. 또 불국사와 석굴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이 가장 많이 소재하는 문화유산의 보고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는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이자 그 자체로서 경쟁력을 가집니다. 우리 경북이 가진 풍부한 문화적 잠재력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5년 민선 경북도지사로 취임한 후 21세기 경북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문화도지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데에는 당시에 제가 읽었던 김구선생

의 「백범일지」 중 '나의 소원'에 있는 '文化大國論'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백범선생의 큰 뜻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백범 선생의 '문화대국론'에 감명 받아"

▲ 지사님 말씀처럼 경북은 불교 · 유교 · 가야문화로 대별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들 3대 문화권의 보존 · 개발정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도에서는 3대 문화권별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함께 문화적 · 자연친화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은 문화재 보호구역내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면서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연간 250억원을 투자하여 '경주고도 보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경주문화특구법'을 제정하여 경주일원을 '문화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을 중심으로 한 가야문화권은 고대문화의 원류인 가야문화를 보존하고 재조명하여 새로운 테마학습관광지로 만드는 '가야문화권 보존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북부지역의 유교문화권은 풍부한 유교문화자원을 계승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세계유교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학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보전하고 현대사회를 이끌어 갈 전통윤리와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건립한 '한국국학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한국국학진흥원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국가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국학진흥원 육성 법률안 제정 건의"

▲ '98년도에 처음 시작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는데, 올 문화엑스포는 어떤 내용인지, 지난 행사에 비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올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천마의 꿈'을 주제로 오는 8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72일간 더욱 새롭고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고, 관람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준 높은 문화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사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화랑과 원화의 사랑과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첨단영상으로 보여주는 주제 영상과 '에밀레종'의 탄생에 얽힌 전설을 한국적 몸짓과 우리가락이 풀어내는 주제공연, 그리고 천년 전 신라시대의 저자거리를 그대로 재현하여 신라인의 삶과 풍습을 직접 체험하는 난장트기, 또한 '천마에서 마시마로까지' 세계 캐릭터들을 한자리에서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세계캐릭터 · 애니메이션전과 '세계무대예술페스티벌' '세계대학생 춤 페스티벌' 등 수준 높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특징은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핵심테마 위주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했습니다. 세계신화전이나 4차원의 주제영상과 주제공연, 그리고 신라인의 전통저자거리 등은

경주엑스포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엑스포공원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인 종합문화 테마파크를 위한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문화』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경주문화엑스포 질 높은 문화체험장"

▲ WTO체제 하에서 세계는 과도한 경쟁체제로 진입해 있고 문화부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문화가 생존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로서의 경상북도가 전통문화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의 전통문화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화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 · 재발견해 나가는 연구 · 분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는 민족정신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 ·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01년에 '한국국학진흥원'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민족의 정신 문화적 전통을 발굴하고 수용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철학과 신앙, 사상 등 삶의 좌표를 정하는 정신문화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족정신문화의 원류를 재조명하여 현대적으로 계승 ·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의 산업화 ·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은 그 차체로서 보전해야할 인류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산업화 · 디지털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사이버 유교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전통문화의 디지털화에 앞장서 왔으며, 2차례에 걸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산업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전승에 힘쓸 것"

▲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개혁의 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분권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단순한 분권 수준을 넘어 수도권 집중의 완화 등 국가의 큰 틀을 새롭게 짜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될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분권은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함양하여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높여나가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최종적인 지향점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는 문예진흥원이나 국립극장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시설이나 기관,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의 알맹이를 채워줄 학문적 기반인 지방대학 발전에 힘을 쏟고, 특히 인문학문의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에 문화특구를 지정하여 전통문화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에서 자생하는 문화축제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

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화재와 전통문화를 지키고 가꾸며 공부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역 문화지킴이(문화사랑) 등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분권은 지역 성장잠재력 고양이 핵심

▲ 향토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지방문화원의 활동이 많았다고 우리 스스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문화부문에서 지방문화원이 어떤 역할, 그리고 지방문화원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지역 문화원이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보호자로서 그 지역의 문화재를 찾고 가꾸며 일반인들에게 그 존재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토축제와 지역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지역화합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문화원이 해야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비영리문화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생활 속에서 시민문화가 자연스럽게 싹트도록 바람직한 사례집을 만들어 홍보하거나 주요인사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문화시민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사회의 지식중개자로서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정책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문화를 둘러싼 21세기의 메시지는 '모두가 문화인' 입니다. 따라서 문화공급자도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로 모두를 위한 문화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추진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연간 17억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문화행정 워크숍' 을 통한 문화원간 정보공유와 타 문화단체와의 교류 등 지방문화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해 지방문화원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원, 문화정책의 실질 파트너역할 기대"

▲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고장, 경상북도의 도백으로서 개인적으로 즐겨하시는 문화활동이 계시면….

민선도지사로서 도정을 이끌다보니 개인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문화관련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도 얻고 소양도 쌓곤 합니다. 특히,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두 차례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문명비평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문화적인 시야를 넓힌 것이 도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교향악단과 국악단 공연 시에는 자주 가서 감상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가끔 극장에 가서 영화 관람을 하거나 집에서 독서를 즐깁니다.

나의 암송습관

옛 성현 말씀 외우며 느끼는 매력

글 · 문용린 서울대 교수 · 전 교육부 장관

나의 오래된 취미 중의 하나는 암송이다. 예전에 기억했던 것 중에서 아무 것이나 떠오르는 대로 암송을 하는 것이다. 물론 물 흐르듯 모든 것이 유연하게 재생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 대목이나, 어느 한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끙끙댄 적이 많다. 그것을 생각해 내느라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몰입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나는 이런 몰입을 즐긴다.

누구를 기다리느라 지루할 때, 밉고 섭섭하여 가깝던 사람에게 주체할 길 없는 분심이 들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마음은 초조한데 정신 집중이 잘 안될 때, 나는 슬며시 눈을 감는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떠오르는 대로 암송을 시작한다.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끝까지 잘 외워야한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생각대로 잘되면 아주 기분이 좋게 다음 암송 거리로 넘어가고, 아니면 막힌 항목에서 몰입에 들어간다. 몇 분간의 몰입으로 잊었던 단어나 구절을 찾아냈을 때의 기쁨이란 아르키메데스의 '아! 찾아냈다' (eureka!)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몰입의 기쁨을 알게 해준 '암송'

이런 암송 습관의 시작은 군대의 사관후보생 훈련시절부터였다. '엎드려뻗쳐' 라는 단체기합을 많이 받았는데, 콘크리트 활주로 바닥 위에 주먹을 쥐고 받는 기합이라서 3~4분을 넘기기 어려웠다.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5~6명은 되어야 기합은 끝나는데, 후보생 200여 명 중 어느 누구도 그 5~6명에 끼고 싶어하지 않았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 기합이 시작되면, 그 고통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딴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그 때 나는 초등학교시절부터 달달 외우던, 매우 길게 이어지는 12개의 기도문(천주교 신자들은 이를 '십이단' 이라고 부른다)을 암송하곤 했다. 완전히 암송하는데 약 4분 정도 걸리는데, 다 외우고 날 때쯤이면 기합은 으레 끝나기 마련이었다. 기합에서 오는 고통을 암송에 몰입함으로써 한층 수월하게 견디어 내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군대의 기합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누구나 그렇듯 내게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후 나는 견디기 힘든 일에 부딪칠 때 으레 암송이라는 수단으로 이에 대처하기 시작하

였다. 고온의 사우나에서 남보다 더 오래 견디겠다는 치졸한 경쟁에서도 암송의 역할은 대단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싫은 소리 한 마디 하지 않고서는 머리가 돌 것 같은, 격앙된 미움을 가라앉히는 데도 이 암송은 주효했다.

'기도문'에서 영문 시, 그리고 한시

이런 암송습관이 연륜을 더해 가면서 12단 기도문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몰입의 효과를 크게 가져오지 못했고 또 암송하는 재미가 크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 된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우선 T.S 엘리어트의 황무지, 애드가 앨런 포의 애너벨리를 외우기 시작했고 롱펠로우와 프로스트의 대장장이, 화살과 노래, 눈 오는 밤 숲가에서서 등을 외우고 암송했다. 소월의 초혼과 천상병 시인의 귀천도 내가 즐겨 암송하는 시이다.

한 때 이렇게 시가 좋아 한참을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고, 평소에 그 분의 입에서 술술 펼쳐 내리곤 하던 한시와 한문구절들이 뇌리에 번개처럼 스쳤다. 참 멋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명심보감』을 외우기 시작했다. 글귀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 특히 참을 인(忍) 자가 많이 나오는 '계성(戒性)' 편의 글귀는 나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계성편을 완전히 외우고 난 후 나는 다시 명심보감의 앞과 뒤를 다시 뒤져서 가슴에 와 닿는 글귀를 40여 개 뽑아서 함께 외웠다. 눈을 감고 한 10분 정도는 계속 암송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한시'를 암송하며 느끼는 '선비 정신'

한자로 된 우리의 옛 성현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은 기도문과 싯귀(詩句)를 외우는 것과는 또 아주 다른 매력이고 흥미였다. 그래서 나는 소동파의 시도 외웠고, 주희의 십회훈과 권학문도 외웠다. 혼자 있을 때 가만히 눈을 감고 그런 것들을 암송하고 있노라면, 나는 어느 새 조선 시대의 한 선비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곤 했다. "아! 이런 재미 때문에 옛 선비들이 사랑방을 지키며 살 수 있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앞으로 나의 암송습관이 다시 어디로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여전히 한문 구절을 외우는 것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다. 요즈음 내가 입에 붙게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고 있는 구절은 노자 『도덕경』의 한 구절이다. '當無有用(당무유용)'이라는 글귀다. 정말로 마음에 든다.

埏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연식이 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 때, 빈곳을 두어야, 그릇의 쓸모가 커진다."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조명 필요

글 · 이서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20세기가 이데올로기시대라 한다면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역사는 반만년 되는 한국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일천하지만 문화력 면에서는 우리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와 문화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닌 듯 싶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일본 식민지지배로 인한 역사단절의식, 자기비하의식, 근시안적인 안목과 과거망각 증세, 형식과 간판 중시, 조급한 결과주의, 외래문화 사대주의 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문명의 충돌'을 예측한 새뮤엘 헌팅튼은 "장차 새로운 시대의 분쟁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경제의 대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라 하여 문화경쟁의 시대가 도래함을 실감케 하고 있다.

외래문화 충격으로 후진국 전락

문화는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삶의 양식의 총체이다. 문화와 문명이 구분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인데 문화가 정신적인 발전의 상태라면 문명은 물질의 발전상태를 뜻한다. 문화와 문명간의 관계를 보면 문화가 한 사회의 지적, 도덕적 발달상태를 지칭한다면 문명(civilization)이란 말은 시민권(civitas)이란 말에서 유래하듯 '훈육된', '질서 있는' 총체적인 시민들의 삶을 의미한다.

우리는 근대화과정에서 전통의 단절과 외래문화의 충격으로 문화와 문명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즉 한국의 전통문화는 수천년에 걸친 역사를 통해 부단한 지속과 변화의 역동적 과정을 통해 형성, 발전되어 오다가 근대에 와서 문화와 문명발전사의 균형이 깨졌고, 동서문명충돌로 인해 역사단절의 위기를 맞게까지 된 것이다. 그래서 자주적인 근대화로의 전환이 좌절된 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근대적 문화와 이념이 일제를 통해 왜곡된 형태로 도입되고 식민지정책에 의해 민족문화의 창조적 활력과 역량은 왜소화되었다.

그 결과 20세기 한국의 문화적 상황은 아노미적인 이유로 정체성의 단절위기를 맞아 우리 전통문화의 특성이었던 멋과 조화, 낙천성, 자연성, 보편성, 미풍양속, 예술적 우수성, 공동체적 유대 등 문화의 전

통성을 계승하지 못하고 근대화과정에서 조화보다는 갈등, 여유와 풍요로움보다는 조급함, 서구적인 물질문화, 개인주의 가치가 팽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문화의 특징인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찾아 바로 세워야 한다.

문화는 지식 · 신앙 · 예술 · 도덕 · 법률 ·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삶의 양식의 총체이다. 문화와 문명이 구분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인데 문화가 정신적인 발전의 상태라면 문명은 물질의 발전상태를 뜻한다.

우리 문화 원천은 다종교 공존의식

한국문화의 특징적인 성격은 역사와 현상 어느 면으로 보아도 종교적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400개를 넘는 신흥종교가 신앙되고 있다. 한국 종교문화의 특징은 한 종교의 절대신념체계에 의해 결정되어지지 않고, 여러 다른 종교들이 서로 공존하는 보편성을 보인다. 불교시대라 일컬어지는 고려조에도 유교、도교、무교는 불교와 함께 그 시대 문화를 담당하였고, 조선조에는 천대받던 불교와 무교조차도 그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심지어는 기독교문화까지 정착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여러 종교가 서로 갈등을 일으킴 없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이 다종교 공존(多宗教 共存)은 한국 문화의 커다란 특징이 된다. 또한 한국문화에서는 삶 속에 일하고 놀이하는 가운데 신바람과 신들림을 체험하는 수가 강하다. 한국인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대립하거나 대응하여 갈등적인 요소가 생길 경우 이를 잘 융합시켜 새로운 형태로 형상화하려는 주체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화랑의 풍류도, 원효의 화정(和諍)사상, 율곡의 이기론(理氣論)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문화속성에는 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살생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한다는 생명존중사상이 내재해 있다. 이 사상은 단군신화, 화랑도의 세속오계, 동학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고, 백성들의 삶을 존중하는 민본주의 정치관으로도 발전하였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함께 다른 생명체도 함께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인간소외, 환경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나 국내 통치 과정에서 평화유지를 통치이념으로 삼아왔으나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저항 정신을 보여주었다. 즉 침략자를 응징하면서도 동양 평화의 유지를 강조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 무저항 비폭력의 3、1운동은 모두 우리 민족의 평화 애호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간관계와 조직문화면에서 우리 사회는 공식적인 조직원리 이외에 각종의 인연이 작용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화, 사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부패척결이 소리높이 외쳐지고 그 실적 또한 만만치 않았으나,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한 비공식적 인간관계가 공식적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한국인의 의식상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통성 단절이 서구사회 몰락 가져올 수도"

일면 우리 의식상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첫째로 인간관계와 조직문화면에서 우리 사회는 공식적인 조직원리 이외에 각종의 인연이 작용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화, 사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부패척결이 소리높이 외쳐지고 그 실적 또한 만만치 않았으나,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한 비공식적 인간관계가 공식적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한국인의 의식상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전통에 대한 애착심이 적고, 오늘 잘 살게 되면 어제의 고난은 쉽게 잊는 습성이 있다. 5천년이라는 긴 역사의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의식이나 행위에서는 역사의식이나 문화적 자부심이 약하다.

셋째, 약속도 쉽게 하고 어김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염치 체면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예스' 라고 해 놓고 약속을 어겨 신용이 없는 허풍쟁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형식과 외관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풍토로서 부를 과시하며 분수에 맞지 않는 겉치레만을 일삼는다.

다섯째, 지나치게 결과를 중시하는 점과 자기와 다르면 못 봐주는 기질, 공덕심이 부족한 점,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는 점, 자기만 편하려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행위, 무조건 내 것으로만 만들려는 강한 소유욕, 눈앞의 결과에만 조급한 근시적 안목, 투철하지 못한 계약의식 등이다.

위에서처럼 어느 사회에서나 가치관이나 문화는 두 가지 측면을 갖게 되는데 한 면은 한 민족 한 사회가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으며, 다른 한 면은 발전을 가로막는 멍에가 될 수도 있다. 즉 전통은 애매함과 비합리성, 무지몽매함 등의 너울을 쓰고 보수를 강요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인간이 더 낳은 삶을 위해 분투하여 축적된 문화 유산으로서 진보와 합리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통은 무턱대고 배척할 것도, 받아들일 것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버려야 할 전통과 지켜야 할 전통을 이성적으로 판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는 것이 문화민족의 당연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의 두 가지 속성인 형식성과 본체성은 현실적으로는 철저히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현실사회에서는 양자가 상당량의 내적 상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비평가들은 서구사회의 몰락 증거를 전통성의 상실에서 찾고 있다. 반면, 비 서구권의 비평가들은 그들 사회의 낙후 원인도 전통적 요소의 과도함으로 돌리고 있다.

전통문화 재조명으로 정체성 확립

우리 민족은 근대화과정에서 일제 36년 동안 타력에 의하여 전통과 단절된 교육을 받아왔다. 일제는 우리의 역사문화를 왜곡했고, 언어문자를 말살했으며 성씨마저 그들의 것으로 고치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고 속결적인 '왜화(倭化)' – 이른바 황국신민을 만드는 – 교육의 현실에서 우리의 역사문화가 수천년을 두고 지속되어 온 것이 아니었거나, 종족구성이 비교적 단일화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쉽게 그들에게 동화되어 갔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민족을 구별하는 주요 요건인 언어, 풍속, 역사가 감금당하고 인명과 재산이 그들 마음대로 좌우되고 생활의 자유마저 빼앗기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주체적 자아의 근본을 잃지 않았던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해방 후 무엇보다도 먼저 계승 발전되어야 했을 민족문화의 전통이 또 다시 서구화와 냉전이데올로기라는 거센 물결에 밀려나 날이 갈수록 유폐(幽閉)되거나 심하면 파괴당하기까지 하는 위난을 겪어야만 했으니 이는 분명 자기문화에 대한 배은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이 아닐 수 없다. 민족문화의 전통이 오랜 세월을 두고 쌓아 올려진 것이고 그것이 현재라는 교량을 거쳐 과거에서 미래로 전해지는 것이라면, 과거와 단절된 현재는 우리의 후손들과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전통과 단절된 현재, 과거의 근원을 망각한 미래는 자아가 없는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조명을 통해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문화사유의 틀인 균형과 조화 및 융합과 평화의 정신을 민족통일문화로 발전시켜 세계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진정한 한국화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민족문화의 전통이 오랜 세월을 두고 쌓아 올려진 것이고 그것이 현재라는 교량을 거쳐 과거에서 미래로 전해지는 것이라면, 과거와 단절된 현재는 우리의 후손들과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전통과 단절된 현재, 과거의 근원을 망각한 미래는 자아가 없는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조명을 통해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문화사유의 틀인 균형과 조화 및 융합과 평화의 정신을 민족통일문화로 발전시켜 세계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진정한 한국화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기가 올라오는 황토

글 · 주강현 (사)한국민속연구소 소장, 문화재전문위원

혹독한 겨울날이라도 따스한 햇볕만 있다면 붉은 황톳길을 걸으면서 보리밭 내음을 맡는 것만으로도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황토는 한국인의 정서적 감흥에 가장 잘 부합되는 색깔과 느낌, 효용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 많은 시인들의 작품에 황톳길이 노래되는 이유는 단순한 시어(詩語)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황토에서 태어나서 황토로 돌아가는 한국인의 삶이 강력하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인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재미있는 대목이 등장한다. 황토굴의 뛰어남을 노래한 글이다. 그의 아들이 후원에 흙으로 토굴을 지은 것을 보고 이규보가 묻자 이렇게 답한다.

"이것은 분묘가 아니라 흙집입니다. 이 집은 겨울철에는 화초와 호박을 얼지 않도록 보관하는데 좋습니다. 또 땅 속 깊이 파서 만든 집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녀자들이 길쌈하기도 좋습니다.

아무리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날이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흙의 온기가 마치 봄날 같아 손이 얼어 터지지 않으니 여러모로 좋습니다."

황토찜질방은 오늘날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아픈 사람들은 황토로 만든 구들에 누워서 장작으로 불을 때어 찜질을 하는 생활풍습이 보편적이었다. 이를 산업화시켰을 뿐이다. 바닥을 잘 들여다보면 미세한 구멍으로 불기운이 보이고 연기도 송송 올라온다. 흙의 숨구멍으로 불기운의 뛰어난 기가 올라와서 건강을 도와주는 것이다.

흙집의 뛰어남을 잘 표현하였다. 선사시대는 물론이고 근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건축물의 대부분은 흙집이었다.

흙벽돌을 쌓아올린 흙집으로부터 수수깡이나 대나무를 집어넣어 골조를 만든 흙집, 판자에 흙을 밀어 넣어 다져낸 투막집 형식의 흙집에 이르기까지 온통 흙집에서 살았다. 흙집에서 태어나서 무덤의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니 흙문화는 한국인에게는 어떤 윤회적 삶을 압축하는 표징과도 같은 것이다.

흙은 한국인의 윤회적 삶의 표징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흙을 우습게 여기고 서양식 시멘트문화에 매몰돼 왔다. 근년에 들어와 황토바람이 불면서 황토찜질방, 황토아파트, 황토집, 황토침대 등이 등장하였다. 사실 따지고 보면 황토바람은 단순 유행으로만 지나칠 바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오고 업신여겨왔던 황토의 진실을 제대로 평가해 보아야 할 순간이 아닐까.

한반도, 특히 한반도 중부이남은 황토가 뛰어나다. 황토는 절반 이상의 성분이 석영이다. 각감석, 흑운모, 녹니석, 석류석 같은 중광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황토는 화강암, 편마암, 규토 등이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마사황토로 변하고, 황토 자체에서 점토광물이 생성되어 미세한 점토가 형성된다. 풍부한 광물질을 내포함으로써 황토는 쉽게 약용화 될 수 있는 소질을 갖는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지장수' 라고 하여 황토로 인하여 생성된 물을 높게 쳤다. 실제로 양어장을 해본 사람들의 경험담이 이를 잘 증명한다. 시멘트로 만든 바닥에 키운 잉어와 황토로 조성된 양어장에 키운 잉어가 많은 차이가 난다. 단연 황토양어장의 잉어가 건강하고 잘 큰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감옥바닥은 황토바닥에 거적대기를 넣은 정도였다.

◇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황토민박집 모습.

매를 맞고 옥에 던져진 죄수가 장독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황토흙 때문이었다. 시멘트바닥에 던져진 죄수와 황토흙에 던져진 죄수의 처지를 비교해보아라! 동물에 따라서는 상처를 입

펄펄 끓는 아랫목에서 산모가 몸을 푸는 곳, 추운 겨울날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입을 통해 자식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구전의 역사가 펼쳐졌던 '쓰여지지 아니한 역사'가 서술되던 '구술문화'의 현장,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 운명을 다할 때 자손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쥐던 곳…. 그러한즉 구들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자리'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으면 양지바른 땅의 황토흙에 상처부위를 비벼댄다. 자연요법을 기대하는 것이리라.

동물들도 황토 이용 자연요법 기대

황토찜질방은 오늘날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아픈 사람들은 황토로 만든 구들에 누워서 장작으로 불을 때어 찜질을 하는 생활풍습이 보편적이었다. 이를 산업화시켰을 뿐이다. 바닥을 잘 들여다보면 미세한 구멍으로 불기운이 보이고 연기도 송송 올라온다. 흙의 숨구멍으로 불기운의 뛰어난 기가 올라와서 건강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풍습에 복토훔치기가 있다. 정초에 부잣집 아궁이의 흙을 훔쳐서 옮겨놓으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다. 왜 하필이면 아궁이의 흙일까. 이를 동의보감에서는 '복룡간(伏龍肝)'이라 불렀다. 복룡간이란 30~40년 된 부뚜막바닥의 재로 단련된 흙을 말한다. 나무장작을 펴낸 재가 쌓이고 쌓여서 황토흙과 범벅이 된 채로 굳어진 흙은 뛰어난 약효가 있다고 보았던 것.

"복룡간은 맛에 매운 기가 있고 부인네의 산후출혈, 토혈을 다스리고 해소를 멎게 한다. 지혈작용이 있으며 각종 종기와 독기를 다스린다."

상식적으로 볼 때도 불에 수만 번 달구어지고 재로 단련된 황토흙이 최고로 건강한 흙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 한국인이 황토에 의존하고 황토를 적절하게 활용한 사례는 구들문화가 아닐까. 구들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황토 적절히 활용한 사례가 구들"

펄펄 끓는 아랫목에서 산모가 몸을 푸는 곳, 추운 겨울날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입을 통해 자식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구

◇ 황토를 이용한 민박집과 펜션 등이 가히 붐을 이루고 있다.

전의 역사가 펼쳐졌던 '쓰여지지 아니한 역사' 가 서술되던 '구술문화' 의 현장,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 운명을 다할 때 자손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쥐던 곳…. 그러한즉 구들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자리' 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구들은 두말할 것 없이 접촉문화다. 신체와 바닥이 닿는 문화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구들에 '지진다' 고 하였다. 구들에서 올라오는 황토의 기(氣)가 신체를 회복시키는 것. 그런 점에서 볼 때 현대적 아파트건축물들은 황토의 기를 빼앗긴 것이다. 오죽하면 황토아파트가 인기를 끌었을까. 황토찜질방의 돌풍도 바로 황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의 활력을 기대하는 심리효과가 큰 것이다.

황토의 생태학적 중요성은 일찍이 인식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효율성의 신화에 종속되어 황토흙의 뛰어남을 실생활에서 제대로 응용하지 못하고 있다. 황토로 빚은 옹기가 뛰어난들 아파트살림에 걸리적거린다고 용도폐기하였다. 황토집이 좋지만 비싼 땅의 효율성을 살릴 수 없다는 이유는 거부되었다. 이런 식으로 황토는 일부에서만 쓰여질 뿐, 도시의 삶에서는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신성비가 내리고 생태가 오염될수록 황토의 강렬한 기가 내뿜는 생태적 힘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면 흙집을 짓고 사는 이들이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중동지방이나 중국의 일부지역에는 아예 흙집만이 존재한다. 흙건축이 충분히 과학적이라는 증거다.

황토문화의 '법고창신' 기대

더욱이 우리의 황토는 흙성분이 뛰어나다. 적절한 광물질이 있는가하면 미세한 점토가 끈기를 보장한다. 바람구멍이 있어 숨쉬는 흙이 되기도 한다. 불과 잘 결합하여 옹기문화를 통한 식생활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기도 했다.

황토흙으로 다져진 마당, 황토벽돌로 쌓아올리고 볏집을 올린 초가집, 황토로 빚은 장독대, 황토와 볏짚을 섞어만든 황토구들 등은 전통적 삶의 표징이었다.

반면에 오늘을 생각해보자. 시멘트바닥, 시멘트벽돌, 시멘트 멍텅구리구들, 그도 아니면 폴리에스틸렌 따위의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화합물 더미 속에서 살고 있다.

결론은 하나다. 어떻게 하면 황토를 현대생활에 부합되게 변화 발전시키는 내용물로 적용시킬 것인가. 안쪽은 시멘트로 정리하고 바깥만 흙을 발라서 황토흙 흉내를 낸 유사황토문화도 번성하고 있다. 무언가 몸에 좋다면 유행처럼 번지는 '냄비근성' 이 황토문화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작 황토문화는 냄비근성과는 상반된다. 서서히 달아오르되 천천히 식고 오래가는 문화가 황토문화이리라.

가장 전통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생활에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진한 한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황토문화의 법고창신을 기대해본다.

“틀을 깨고 변화를 추구하자”

원로와 신진 원장이 담론을 나누다

이 글은 지역사회에서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고 향토문화 현장에서 활동을 해 온 원로 이만희(65) 경북 상주문화원장과 향토사 연구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공헌해 온 인천 연수문화원 최정학(40) 원장이 이 시대의 전통문화 유지 발전과 향토문화 현실에 대한 고민을 지난 5월26일 서울 도원(복실)에서 나눈 진지한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이만희 원장, “지역사회를 가꾸고 지킨다”

최정학 원장, “향토사 발굴과 뿌리 전승”

이 우리 지방은 삼한시대부터 농경문화가 발달된 곳으로 임난을 겪으면서 모든 사료가 소실되었어요.

그래 상주를 재조명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사료집 발간을 목표로 제가 원장을 맡으면서 약간의 사재를 출연, 사료 모으기를 시작한 결과 상당한 자료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 상주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이라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향의 도시요 선비의 고장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맥이 아직도 흐르고 있는데 아마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살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맥을 전승하고 승계 해 가는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또는 문화원 발전을 위해 적어도 문화원장은 이런 사람이라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최 문화원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굳이 얘기를 하라면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화원장은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을 끌어 모아서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는가,

적어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수요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잘 봉사할 수 있게 중간자 역할의 식견이 필요하며 지역의 문화메세나 그룹을 만들던가 물질이나 조직적인 힘을 묶어 한 방향으로 모아 줄 수 있는 문화촉매자, 문화기획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원장은 문화촉매자가 돼야"

이 가령 지역의 기업이 문화원을 위한 기여도라고 할까 지원 같은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 그렇게 희망하고 있지요. 올 봄에 어린이 장난감을 소재로 한 전시회를 하면서 미술학원이나 이마트 등에 협찬을 받았어요. 직원들이 자기가 직접 기획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 결합시킬 수 있게 하여 능력가로 키울 수가 있지요. 성과도 컸습니다. 요즘 국민들의 문화수요 측면을 보면 생활문화 쪽이나 현대문화 쪽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방문화원이 전통문화만 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정관에 규정하기를 문화원 내에 부설 향토사료연구소를 만들어 전통문화는 그곳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원 사무국에서는 어학이나 다도, 디자인, 꽃꽂이, 역사강좌, 글짓기 등 생활문화 쪽으로 나누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곁들여서 문화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곳도 있고 또 문화원이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서로 협조체계문제 때문이지요?

"지역 전반에 대한 문화설계도 있어야"

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총체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문화마인드가 부족하거나 설상가상으로 문화담당 부서까지도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그 지역문화원이라도 지역 전반에 대한 문화적인 설계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문화원으로 일을 맡기는데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신뢰가 평소에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문제가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문화원 입장에서는 스스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자립도를 높이는데 고민하고 문화적 콘텐츠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설득력과 브리핑 능력을 가져서 지역문화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기획력이 있어야 신뢰가 형성되고 결국 쌍방이 함께 가야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리 주고싶어도 문화원에서 수용태세가 안 되어 있으면 어렵지요.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행사지원을 해 주니까 공무원들의 자세도 호의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협조가 잘 되더군요. 또 이런 행사를 사무국 직원만으로는 어렵지요.

우리는 임원들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뭐든지 맡겨만 주면 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강좌에 대한 얘기인데 요즘 도시권에서는 자치센터나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백화점 또는 교회에서도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쟁력 확보라고 할까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을 줄 압니다. 예를 들면 강좌의 중첩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 지원도 수용태세를 갖춰야"

최 우리 지역은 문화자치센터 활동이 활발합니다. 저는 문화원 설립 때부터 이러한 사회교육기관이 연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더 강화시키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문화원이 그런 기관을 더 지원하는 입장에 서서 강사진을 구하는 문제나 어떤 곳에는 아예 '찾아가는 문화학교' 라고 해서 강사를 파견하는 곳도 있지요.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많은 강좌를 할 수가 없고 문화원은 더 많은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문화원이 중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문, 사회과학, 전통문화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시민생활 위주나 동네적인 성격의 것은 그 쪽에서 하도록 가끔 실무자급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도 하고 또 축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문화학교가 떨어져 나간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문화원의 자기 위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사회교육이라고 볼 때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나갈 강좌예산이 문화원을 통해서 위탁운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우도 당국에서 위탁운영을 요청해 오고 있고 행정학회 쪽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전시행정이고 전문성도 없는데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니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차제에 문화원으로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맞을 준비를 항상 갖추어 놓고 있어야 하지요.

지금 우리 문화원의 입지라고 할까 위상과 관련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 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향토사 연구와 뿌리 보전이 존재이유"

최 지금 우리 문화원을 비롯해서 몇몇 단체들이 지역 주민이나 국민에게 이렇다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시민단체 쪽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무엇을 하면 자기 잔치로 끝나는데 시민단체 쪽에서는 적은 규모의 행사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위이고 혹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민들에게 애착을 받을 정도로 문화원이 자리매김되어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가 그동안 지역의 향토사를 발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민하게 대처한다든지 대응력을 기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지키고 가꾼다는 일념으로 대처해 오지 않았습니까?

최 그렇지요. 지역에서 향토사를 연구하고 뿌리를 지키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원의 존재이유라고 봐요. 저는 보수적인 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적이면서 무능력한 것이 문제이지요. 보수이면서 '쌈박한' 보수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역의 가장 중심 가치인 향토사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큰 권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문화원에 가야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이 문화원에 모여 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포럼이나 세미나를 자주 갖고 지역사회 교육이나 향토사 발굴에 대한 이슈를 우리 문화원연합회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우리의 의지를 모으고 또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기존의 틀에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연합회에 정책연구소 있어야"

최 우리 연합회나 문화원이 너무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직원 숫자가 부족하여 경상업무 처리에도 급급한 편인데 보다 창조적인 확대 재생산업무에 눈을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려면 지방문화원에 향토사연구소가 있듯이 연합회 내에는 부설 정책연구소라도 있어야 우리의 문제들을 데이터화하고, 각종 통계처리 및 지역사회의 주민들에 대한 모니터와 자체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토대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고 또 예산문제나 축제의 기획 운영, 정보처리 등 실무적인 것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시급한 것은 일반기업의 고위정책과정처럼 문화원장을 대상으로 한 최고 전문가 과정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 사회의 모든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회로부터 어떤 것을 도움 받으려고 하기에 앞서 우리가 연합회를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냐 하는 자세로 앞으로 문화시책과 현안문제를 다루어 나간다고 하면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하는 연합회와 우리 문화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 / 편집부

자율 · 참여 · 분권의 실험무대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의 의미

글 ·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

■ 사업의 배경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년 말부터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총괄 주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각 지역의 지방문화원이 현지주관단체가 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문화는 자율적인 주민자치의 기초단위인 일상생활의 권역에서 가꾸어진 지층문화로서, 공간적(지역적) 개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연대성)을 지닌 문화이고, 주민의 자발성 · 창의성 · 책임성을 전제로 한 주민책임의 자주적인 활동"이라는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필자 나름대로 생각한다.

돌이켜 보건대, 과거 우리 지역사회는 넉넉한 문화창조의 마당이었다. 고을과 마을 곳곳에 축제와 놀이가 있어서 그것을 즐기는 행사가 한해의 생활을 즐겁게 했었다. 과거의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래나 춤을 비롯한 갖가지 예능과 민속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바탕에 경작을 위한 공동노동이 여러 형태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사람들은 자기 마을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하고 그것으로 얻어진 여유를 즐기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래와 춤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는 그곳(마을)에 살고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네트워크)와 만남과 대화(커뮤니케이션) 가운데서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은 문화의 향수자(즐기는 사람)인 동시에 창조자(만드는 사람)로서 문화의 주체이며, 지역사회(마을)는 문화의 모체(母體)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역(마을)문화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 중에는 지역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유대가 희

박해졌다는 것과, 지역주민들이 문화창조자로서의 위상을 잃고 복제문화를 향수 하는데 머물고 있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문화창조의 실천은 우선 지역의 인간적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를 회복하는 갖가지 활동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은 새로우면서도 근원적인 지역문화 활성화운동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는 주민에 의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운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인간적 네트워크를 재생시키고 문화창조자로서의 주체의식을 되찾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이와 같이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는 마을문화의 창조 주체인 주민의 자율적 · 자주적 · 창의적인 참여를 통한 향토문화의 생활화를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하겠다.

■ 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는 첫째 단계에서 5천년 우리문화 · 역사의 뿌리를 찾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둘째 단계에서는 옛것을 되살리면서 살아 숨쉬는 문화 · 역사마을을 가꾸고, 셋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마을에서 독창적이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 육성하여, 넷째 단계에서는 이것들을 토대로 마을의 문화적 품위를 높임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단계적 목표 아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의 전략적 추진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마을 만들기는 주민주도의 자발적 문화운동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존중 · 보장되어야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문화운동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마을문화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독창성 있는 마을문화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주제(테마)를 설정함으로써 마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재인식과 마을주민의 자긍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마을 특성과 기존문화자원의 활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을에 존재하거나 전승되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접목하여 차별성 있는 마을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마을 문화의 생활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복지를 구현하는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관건이다. 마을 만들기는 발상을 전환하고 주민의식을 개조하는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참신하고 독창적인 마을주제(테마) 찾기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적 문화운동이므로 주민이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요구된다. 마을 만들기는 마을의 주민 스스로가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관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주민문화 생활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는 1차적으로 마을 내부의 사람 만들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

▲ 주민회의 및 토론회와 주민의 자체교육을 통하여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마을역사와 전통의 가치와 의미 등에 관한 이해와 합의를 거쳐 사업의 주제(테마)와 프로그램들을 도출하고 다함께 협력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 사업추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리더(지도적 인물)를 선정하고, 주민의 역량을 조직화하여 마을현장에 실행위원회와 같은 실질적인 활동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 전 주민이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홍보요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는 내부의 사람 만들기와 병행하여 2차적으로는 외부의 응원자(협조 · 협력 · 지원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치단체(행정기관)와 각급의회(시 · 군 · 구 · 면, 의회)를 비롯하여 문화예술기관 · 단체, 지역내 학교, 지역내 NGO 활동가 및 각계 전문가, 지역언론기관, 지역내 기업, 지역출신 및 연고인사 등의 협력 ·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마련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마을에는 주민 대다수가 노령층인 점을 감안할 때, 도시지역의 젊은 문화일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열린 마음 자세가 요망되기도 한다.

위에 열거한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문화 · 역사마을의 자립기반이 조성되고, 사업의 지속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의 또 다른 의미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자율 · 참여 · 분권'의 3대 가치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세웠으며,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도 이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에는 이 3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3요소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개변이 아니라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달성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자율'과 '참여'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으로 가름하고 여기에서는 '분권'에 관하여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한다.

참여정부가 '분권'을 표방한 이후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각계의 관심자들이 이 문제(분권)에 관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아직 이렇다할 공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문화예술계의 그동안의 토론을 종합해 보면, 문화분권은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민주화의 수단으로서 "지역실정에 알맞는 정책결정의 다원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문화시설 · 문화행사 · 문화정보 · 문화창조 · 문화향유의 분산을 위하여, 중앙재원의 분배에 의한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문화집중으로부터 분산(위임)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필자도 오래 전부터 문화정책의 제1원칙은 '분권화'라는 점을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 풀뿌리 문화주의(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발성 · 창의성 · 책임성이 전제가 되는 문화생활(문화활동)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중앙정부의 무거운 관료적 성격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고안되어야 하며, 문화계획(문화정책)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입안 ·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어떻든 '문화 ·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은 생활권역인 마을 단위의 문화분권운동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 · 참여 · 분권'의 실험무대라는 또 하나의 의의를 갖고 있다 하겠다.

전통과 현대의 문화마당

글 · 강원일보 조상원 기자
사진 · 강원일보 김남덕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3회 강릉단오제가 지난 6일 송신제를 끝으로 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

강릉단오제가 열린 강릉 남대천 단오장은 5일간의 축제동안 불야성을 이루는 난장과 사람들로 북적이며 전통과 현대의 문화마당을 이뤘다.

이 기간동안 제의를 중심으로 지정문화재 공개행사 11개 종목, 단오제 민속체험 참가 행사 5개 종목, 지역(중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4개 종목,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10개 종목, 국내 민속단 초청공연 2개 종목, 민속 · 경축 행사 14개 종목 등 모두 6개 분야 51개 종목의 행사가 펼쳐졌다.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사전준비를 겸해

특히 올 강릉단오제는 2004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프리 이벤트로, 또 오는 2004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작업 등으로 무척 의미 있게 진행됐다.

제의와 놀이, 난장으로 이루어진 강릉단오제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신께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마을 주민들간의 단합을 다졌던 제의에서 비롯됐다.

강릉단오제의 제의는 독특하다. 강릉단오제 제의의 독특성은 강릉의 향토지인 임영지에도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러한 전통의 모습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강릉단오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신비스럽게까지 느껴지는 전설과 함께 아련한 옛 향수와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인류무형유산 후보등록 준비도 겸해

특히 올해는 2004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10분용, 3시간용 영상물 제작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원형을 그대로 살려 행사를 진행됐다.

강릉단오제의 첫 시작을 알리는 영신행차에는 강릉지역의 기관단체장과 시민 5,000여명이 참여해 준비한 단오등 3,000개가 현장에서 순식간에 동이 났다. 특히 이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여수 사무총장 부부, 웰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 최불암 회장을 비롯해 최종원, 박은수, 김혜정 씨 등도 함께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또 단오명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단오민속 체험관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5일 동안 발 디딜 틈 없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1, 2관으로 구성된 단오민속 체험관은 단오신주 시음회, 창포 머리감기, 단오수리취떡 만들기, 창포뿌리 비녀깍기, 단오 부적 그리기, 관노탈 그리기, 단오부채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특히 단오신주는 강릉시민들이 단오제를 맞아 가족의 안녕과 성공축제를 기원하며 십시일반 헌미한 쌀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줘 그 의미를 더했다.

정호돈 위원장, "시민참여 열기가 성공행사 원동력"

5일간 꿈의 축제인 강릉단오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뙤약볕도 마다 안고 단오장을 지킨 정호돈 강릉단오제 위원장(강릉문화원장)은 "단오민속 체험관에 마련한 단오부채 그리기, 수리취떡 만들기, 관노 가면극 탈 만들기 등 각종 체험행사에 준비한 수량이 모자라 추가 주문을 하는 등 단오민속 체험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러한 단오민속 체험관의 시민참여 열기가 단오제를 성공행사로 끌고 간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또 강릉단오제의 핵심공연인 중요문형문화재 13호인 단오굿, 관노가면극, 중요무형문화재 제11-라호 강릉농악, 도 무형문화재 제5호인 학산오독떼기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강릉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사스'의 영향으로 해외공연단 초청은 없었지만 고성오광대, 봉산탈춤, 동래야류, 남해안 별신굿, 하회별신굿 탈놀이, 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강령탈춤, 진주검무 등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10개 팀이 5일 동안 공연을 펼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축제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색은 각 시민단체들이 단오제를 맞아 주최하는 민속 · 경축 행사들이다.

매년 단오날 오후1시 단오장 대동마당에서 열리는 강릉 사투리대회를 비롯해 씨름대회, 그네뛰기, 투호대회, 시조 경창대회 등 다양한 행사

가 시민들의 힘으로 진행된다.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지역축제로 손꼽히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난장과 사람 구경 볼거리도 '쏠쏠'

강릉단오제의 또 하나의 볼거리는 난장과 사람 구경이다. 연일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단오장을 드나들며 단오굿을 보고 놀이를 즐기며 난장을 구경했다. 이 기간동안에는 강릉 남대천 단오장은 전국에서 몰려든 장사꾼들로 가득 찬다. 백화점, 대형마트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도 그 장사꾼이 만들어내는 난장의 묘한 매력에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강릉경제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모든 사람들이 발길이 단오장에 집중되고 강릉의 돈도 단오장에서만 풀린다.

바로 이러한 매력들이 어우러져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신화와 제의, 그리고 사람들이 어울리는 놀이와 난장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축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강릉단오제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속의 축제로 도약하는 기로에 섰다.

2003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룬 강릉단오제는 2004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그리고 2005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등록을 통해 강릉시민들의 자존심에서 세계인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온 것이다.

강릉단오제 세계 속의 축제로 받돋움

2004년 6월11일부터 27일까지 강릉 남대천 시민공원에서 펼쳐지는 강릉국제관광민속제는 '신과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강릉단오제를 바탕으로 한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제례의식이 한자리에서 펼쳐지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해 강릉시는 강릉단오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관광 강릉을 세계 속에 알린다는 복안이다.

또 2005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등록은 강릉단오제를 세계 속의 축제를 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두 가지 모두 강릉단오제를 준비하는 강릉시나 강릉시민의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행사인 것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여수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후보등록을 앞두고 있는 강릉단오제에 대해 "시민들의 역동적인 참여로 축제가 한층 빛나는 강릉단오제는 기복의 신앙 등 본래의 정신이 살아있는 축제"라고 전제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릉단오제를 어떻게 보존,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마스터플랜 제시"라고 지적했다.

어쩌면 강릉단오제를 통해 우리 문화의 자존심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신화와 제의, 그리고 사람들이 어울리는 놀이와 난장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축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강릉단오제가 이제 세계 속의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제1회 포은문화제 – 용인문화원

용인문화원(원장 홍재구 · 洪在九)은 6월 20일부터 2일간 용인시문예회관과 포은선생 묘역(용인시 모현면 보현리)에서 포은 정몽주 선생의 유업을 재조명하기 위한 제1회 포은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포은 사상과 학문을 기리는 학술대회와 상여행렬을 비롯해서 한시대회, 학생백일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 포은 선생 추모 제례는 포은집의 문헌과 예전(禮典)에 의거, 조정에서 예관을 파견해 치제(致祭)하게 한 제례를 복원하는 내용으로 성균관의 문묘제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했다고 한다.

이외 용인풍물단 등에 의한 기념공연으로 뒤풀이를 갖는 등 지역민과 함께 성대하게 열었다.

김종우 원장에게 추천작가증서 수여

평소 서예를 익혀 온 의성문화원 김종우 원장이 양산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관설당 서예대전에서 1, 2회 연속 특선과 입선에 올라 서화예술 활동 및 사회적 덕망을 높이 평가해 관설당서예협회장(회장 이종관)으로부터 작가증서를 받았다.

문화가족 현장교육 및 청두리풍물단 창단 – 부산 강서문화원

부산 강서문화원(원장 서재수 · 徐在洙)은 6월 9일 문화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산청지역 문화유적지인 문익점 선생 목면시배유지(木棉始培遺地)를 비롯 성철스님 생가와 조식 선생의 덕천서원, 가락국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능 등을 답사하는 현장교육 시간을 가졌다. 또 6월 17일에는 강서문화원 강당에서 풍물강좌를 통해 익혀 온 30여명의 문화가족이 참가하는 '청두리 풍물단'(단장 박정연) 창단식을 갖고 앞으로 강서지역 내 각종 문화행사 때 문화원 전속 풍물단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 남제주문화원 개원

남제주문화원(원장 한공익)은 6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 남원읍 남원리 소재 남제주 군민체육관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과 권영철 제주도 행정부지사, 강기권 남제주군수와 김병두 군의회 의장 그리고 양중해 제주도지회장과 홍순만(제주) · 김계담(서귀포) 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제5기 한국문화학교 수료식 – 통영문화원

통영문화원(원장 김세윤 · 金世允)은 6월 20일 문화원 대전시실에서 3개월 과정의 서예, 한국화, 전통무용, 사진, 향토사, 명심보감, 한지공예, 컴퓨터 등 120여명의 문화강좌 수료생을 배출하는 제5기 한국문화학교 수료식을 갖고 이들의 수료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지회 제12대 지회장에 이만희 원장(상주)추대

전문연 경상북도지회는 6월 16일 오전 11시 문경문화원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2대 지회장으로 이만희 상주문화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신임 감사에는 백병구(예천) · 장영복(칠곡) 원장을 각각 선임했으며 운영위원 선임은 신임 지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제8회 성호문화축제 – 안산문화원

안산문화원(원장 이정태 · 李鼎泰)은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 성호 이익 선생을 기리고 안산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성호문화축제를 가졌다. 성호 선생을 숭모하는 서원제와 백일장, 사생대회,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성호사상 학술대회를 비롯해서 국립도서관과 이익 선생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호선생 저서 특별전시회도 열렸다.

70년만에 핀다는 오죽꽃(烏竹花) 개화

평생 한번을 보기 어렵다는 오죽꽃이 피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 강서문화원(원장 서재수)은 6월 25일 문화원 회원이 3년 전부터 화분에서 키워 오던 오죽(烏竹)에서 한달 전 꽃이 피어났다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꽃구경을 권하고 있다. 직경 30㎝ 크기의 화분에 약 50㎝ 키로 자라난 오죽에서 핀 꽃은 보리 이삭과 비슷하나 자세히 보면 검은 대나무 줄기에 잎 대신 잘게 부서져 갈라진 갈색 꽃 뭉치를 볼 수 있다. 이 오죽은 통영문화원 서 원장이 지난 2000년 관내의 한 폐사찰 마당에서 캔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대나무에서 꽃이 피면 경사가 생긴다'며 흐뭇해하고 있다.

경상북도지회 문화원사무국장 연수회

전문연 경북도지회 문화원사무국장협의회(회장 백락구)는 6월 26일부터 2일간 경주에서 사무국장 연수회를 갖고 문화원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완주문화원 임원 선임

완주문화원(원장 구영철)은 최근 신임 임원진으로 윤대형 · 이행구 부원장을 선임하고 임원규 이사 등 임원진 구성을 마쳤다.

제2회 찾아가는 문화활동-부평문화원

부평문화원(원장 허문명 · 許文明)은 7월 19일 오후 4시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단체 및 청소년 동아리 공연팀과 초청공연팀 등이 출연, '제2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를 갖는다.

또 9일 오전 7시에는 부평구청 7층 식당에서 국민대 이종태(국사학과) 교수를 초빙, '인천의 풍수지리와 명당'을 주제로 한 '제6회 부평문화원 아침문화강좌'를 열기도 하였다.

반디불이 어린이 사진교실 – 제주문화원

제주문화원(원장 홍순만 · 洪淳晩)은 초등학교 4 · 5 · 6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상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영상 이미지로 표현케 해 어린이들의 창의력 계발을 위해 7월 29일부터 1박 2일간 휘트니스타운에서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교수 고남수 사진작가의 지도로 반디불이 어린이 사진교실을 연다

아빠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지 견학 – 과천문화원

과천문화원(원장 최종수 · 崔鐘秀)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7월 29일과 8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1박2일 코스로 경북 경주일대와 경남 사천일대를 견학하는 유적지 탐방에 나선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가족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부자(녀)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조상의 찬란한 얼이 담긴 문화유적의 소중함을 직접 현지답사를 통해 깨닫게 한다는 취지로 7월 10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과천문화원 02-504-6513)

어린이 글짓기 교실 개최 – 천안문화원

천안문화원(원장 민병달 · 閔丙達)은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린이 특별프로그램으로 '글짓기 교실'을 마련하고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글짓기, 독서지도, 독후감 지도, 문장의 이해 등을 가르치게 된다. 수강료는 없고 접수비 1만원이 있다(문의 천안문화원 575-3004, 576-3004).

문화관광부 인사 안내

– 예술국
국 장 : 백 익 (白)

– 전통지역문화과
과 장 : 이 병 두 (李 炳 斗)
문화원담당(서기관) : 이 형 호 (李 炯 虎)
문화원담당(주 사) : 장 진 상 (張 晋 相)

제1회 화성시 홍재 사진공모전 개최 –화성문화원

화성문화원(원장 기봉서 · 奇鳳舒)은 사진작가 및 동호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하고 발전하는 화성시의 모습을 기록 보존하기 위한 '제1회 화성시 홍재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소재는 △화성시의 문화재 및 전통제례의식(전통문화소재 포함) △화성시 상징물(개나리, 은행나무, 비둘기)을 소재로 한 순수예술 사진 △시민의 생활상과 활기찬 삶의 현장 △화성시의 옛 모습과 발전 모습을 담은 사진 △제부도 및 해안가의 풍광 및 사계절 작품사진 △기타 화성시의 특징을 표현하는 작품사진이면 된다. 응모자격은 제한 없고 1인당 출품료는 1만원이며 5점 내외를 출품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화성문화원 사진작품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031-353-6330)

서울시지회 문화원 직원연수교육 및 문화탐방

전문연 서울시지회(지회장 김영섭)는 6월 27일부터 2일간 목포와 해남, 담양서원 등을 순회하며 문화원 직원연수교육(오용갑 목포문화원장 특강) 및 문화탐방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한편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개인전 – 백두대간의 생명미감전

김종 원장(광주 서구문화원)이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 서울 대학로에 있는 한국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 전시회(60여 작품)를 가졌다. 시인이면서 화가인 김 원장의 그림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섬세하고도 오묘한 기법으로 생명미감의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는 것이 전시회 첫날 모인 관객들의 평이다. 김종 원장은 "무릇 모든 창작행위는 강물 하나쯤 만들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 강물은 무심히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굽이를 만들면서 흘러가는데 나는 그 굽이마다 변화도 만들고 감동도 만들고 아름다움도 만들면서 흘러갈 것이다"고 말했다.

옛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고문서 특별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장을병 · 이하 정문연) 장서각(관장 문옥표)은 정문연 개원 25주년을 기념하는 '고문서 특별전'을 6월 25일부터 7월12일까지 정문연 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정문연에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의 서원, 향교, 문중,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자료를 수집 정리 간행해 왔다. 이들 자료 중 일부를 {고문서집성} 63책으로 정리, 간행해 학계에 보급한 바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선인들, 특히 조선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고문서를 통해 조명해보는 데 의의를 둠. 전시는 먼저 양반 관료의 삶과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였고, 이어 선인들의 경제생활과 여성생활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우리 출판인쇄문화를 살펴볼 수 잇는 자료와 조선시대 학술문화의 흔적과 선비의 아취(雅趣)가 담긴 예술작품을 두루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전시자료에는 {통감속편}(국보 282호) [손소적개공신도상](보물 1216호) [이충원호성공신교서](보물 872호)를 비롯 보물급에 해당하는 {십초시} {응제시} [유의손형제화회문기] 등이 전시돼 있다. 장서각 문옥표 관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고문서 자료의 수집과 정리, 간행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고문서 자료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선인들의 혼이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인 고문서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 관리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속사 재현

인제 지역에서 옛선조들이 이고장의 환경에 따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는데 빼놓을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뗏목생활사이다. 예부터 인제 지역은 산이 많아 임목자원을 얻을 수 있는 자연 조건이 좋았다.

이러한 중요한 민속사를 인제문화원에서는 지난 85년도에 당시에 뗏목생활을 직접 했던 옛 노인네들의 고증을 받아 발굴을 하였고, 또한 제 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재현을 하여 영예의 종합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나 17년의 긴세월을 보내면서 사장되어 오다가 지난해(2002. 7.10 ~9.30)에 다시 재현하여 영상기록(DVD, 비디오테이프)으로 보존하고 홍보하고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결실을 보았다.

즉 도벌꾼의 입산, 산치성, 도벌, 통발에 의한 하산, 목도운반, 적심, 토장쌓기, 뗏목엮기, 강치성, 뗏목운행 과정을 세밀하게 원형대로 영상기록에 담아 전국에 홍보하며 기록 보존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봄 여행레져TV 영상페스티벌에서 인제뗏목이 대상을 수상(영프로덕션 신동영 감독)하였고, 다큐멘터리로 위성방송 채널 여행레저TV에서 방송되어 왔다.

이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2003 제 65차 UNICA(세계영상예술협회)총회와 세계영화제 한국 대표작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번 세계무대 출품으로 인제 뗏목이 한국의 우수 민속사료로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인제뗏목 운행 민속사

인제 합강리에서 뗏목이 엮어져 출발 전 강치성을 지낸 후 앞사공 뒷사공이 타고 아침에 출발을 하여 춘천 소양로 윗다리 부근에 오후 4시경이면 도착했다. 이들은 당시 점심을 준비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다.

다시 춘천에서 뗏목을 3바닥~5바닥을 모아 서울까지 운반하는데 7일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서울까지 여러 날이 걸리므로 뗏목 위에서 밥을 해먹거나 주막집을 찾아 사서 먹기도 하였다.

밤에 시간이 촉박할 때 계속 뗏목을 운행하며 가는 때도 있고 잠을 자고 갈 때면 '버레(강에 있는 돌무지)'에 뗏목을 매고 잔다 한다.

한편 인제에서 춘천까지 뗏목을 운행하는데는 위험한 여울이 15개소 이상 있었는데 이중에서 가장 무섭고 험난한 여울은 '큰포아리' 일명 호랑이 여울이라고도 불렀다. 집채만한 돌더미가 머리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물 속을 빠져나가야 하므로 자칫 잘못하면 물길에 휩싸여 익사하거나 석벽에 부딪쳐 사고를 당한다고 한다.

그밖에도 합강에서 출발하여 처음 만나는 '앞여

울' 또는 '첫돌바우', 시루같이 생긴 바위가 물 속에 있는 '시루바우' 뾰족한 바위 '송곳돌' 또는 '꿩의 여울', 물살이 세어 다섯 동가리를 모두 비틀어 이음새를 다 끊어 놓는다는 '비트리', 소목같이 생긴 쇠여울 등의 여울이 모두 험난한 여울이었다 한다.

춘천에서 서울까지의 여울에는 다리아우(신영강 밑)-마당골-가령갓까라-갓내울쇠바리(소양강과 홍천강이 합수되는 들머리)-전여울(청평댐밑)-고래이(수심이 가장 얕음)등이 있다고 한다.

여울에는 인제에서 춘천까지 오는 여울이 매우 위험하며 춘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여울은 평탄하여 그리 위험하지는 않다고 한다.

정류처와 주막

예전에 뗏목꾼들은 인제 합강에서 춘천까지 다시 춘천에서 서울까지 뗏목을 타고 운행을 하다보면 매우 어려운 일 속에 위험은 물론피곤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특히 인제에서 춘천까지의 여울들이 매우 위험하여 여울들을 지날 때면 다시는 뗏꾼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배운 것이 그것뿐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거듭 뗏목을 계속 타야만 했던 것이라고 고증인들은 말해준다.

뗏목꾼들은 인제 합강에서 밤이되면 주막에서 먹을것과 잠을 해결하고 다녔는데 주막거리로 유명한 곳은 도지거리, 덕두원, 미음, 팔당 등이며 특히 '미음'의 '색정네' 주막집은 썩쟁이(들병장수)가 8~9명이나 있는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미음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되는 곳이기 때문에 남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따라서 색주가로 붐빈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뗏목아리랑

뗏꾼들을 뗏목을 장기간 운행하면서 뗏목아리랑을 불렀다고 한다. 그들은 자기(인간)와 자연(물)과 고독과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험한 물살위로 험준한 여울마다 목숨을 걸고 밤잠을 지새우며 고달픔을 달래면서 살아가는 직업이기에 자신을 달래고 움직일 수 있는 흥과 힘을 내기 위해 알게 모르게 흥얼 거리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따라서 뗏목아리랑은 뗏꾼들의 노동요였다.

글/이만철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지상중계

▣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

▣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 · 관광분야 정책토론회

참여정부 들어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또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에 관련된 토론회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세미나도 활발하다.

이번 호에서는 7월 2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와 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와 6월11일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가 재정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 · 관광분야 정책토론회' 내용 일부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새 정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시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와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한겨레신문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 공동주최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문화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학계·시민단체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발제·토론자로 나서 새 정부 분야별 문화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2일 열린 '사회발전전략으로서의 문화정책'에서 강내희(중앙대 영문과·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교수는 '경제적 이성 비판과 사회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강내희 교수는 "문화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며, 문화적 실천이 없으면 창조적 행위를 할 수 없고, 나아가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도 없다. 따라서 인간은 문화를 가꾸지 않고 외면한 채 인간답게 살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문화를 경제 수단화 한 경제이성주의에서 벗어나 문화를 사회정책의 핵심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발전 전략을 세울 때 경제적 이성만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면적 역능을 향상시키려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공공 총투자는 영국의 1/3, 일본의 1/5, 독일의 1/10, 캐나다의 1/12, 스웨덴의 1/15, 프랑스의 1/18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경제발전이 계속될수록 사회발전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문화발전에 대한 노력 부재가 역설적으로 경제발전의 전망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와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가 주관한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7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문화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제 중 '경제적 이성 비판과 사회발전 : 문화적 권리, 공공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중앙대 교수)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개혁과제 : 문화부 정책조정 및 조직개혁 문제를 중심으로'(원용진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 서강대 교수) '지역불평등 해소 및 문화민주주의 확대 전략으로서의 지역문화정책 활성화'(임정희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 연세대 겸임교수) '참여정부 문화산업정책의 개혁과제'(이원재 문화연대 정책실장)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마저 어둡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사회발전 전략에 문화적 접근 필요"

강 교수는 과거에는 문화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부산물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문화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 유연적 노동 · 지식정보경제의 지구화 등을 통해 과거 물량위주의 공업중심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지식문화서비스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문화활동은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경제발전의 메커니즘이 변화함에 따라 공교육에서의 교육과정과 체계의 변화는 물론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필요가 증대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등으로 복지와 여가체계의 문화적 전환이 요구되면서, 그간 수직적 위계와 분과적 구조로 서로 분리되어 있던 경제-교육-복지 정책이 문화 정책을 매개로 입체적인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정책 전반의 문화적 리모델링이 요구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공업경제 중심의 환원주의적 모델에서 지식, 문화, 경제 발전이 상호 중층 결정되는 복잡성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하자"

그래서 강 교수는 "△문화적 권리 신장을 문화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을 것 △문화적 권리장전 채택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이어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문화적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발전의 기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개혁과제 : 문화관광부 정책조정 및 조직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원용진(문화연대 정책위원장 · 서강대) 교수는 "문화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

다"고 전제하면서 "문화가 정치적이며 문화정치란 점은 문화정책을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문화정치적 사고에서는 문화예산의 크기에 관심을 두기도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예산의 영역에 삼투될 수 있고 더 큰 예산 영역보다 유용한 일을 해낼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행적으로 되풀이 해온 '적은 예산 타령'이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문화적 가치를 삶 속으로 삼투시키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 정치, 경제와 연관된 – 영역임을 인식하고, 사회에 그를 알리게 한다는 것이다. 즉, 문화정치적인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은 문화를 다르게 정의하고, 그것의 지위를 부상시키게 된다는 주장이다.

"문화정치적으로 사고하자"

원 교수는 "'국민의 정부'에서 문화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이 있었고, 예술창작여건 개선도 이전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프라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 전문인력 고려 부족 △문화산업 지원의 적실성 문제 △문화적 역량을 키울 계기에 대한 고려 부족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이 문화산업에 비해 지원수준 미흡 △소통(communication)정책에 대한 적절한 정책 부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문화교육의 강화 △문화기획 · 디자인의 중요성 인식 △문화민주주의의 강화 △문화예술지원기구의 민주화 △적극적인 소통정책을 통한 다양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정책방향은 예산책정 뿐만 아니라 문광부 및 관련 단체 내 조직개편과 조직 내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정 혹은 개발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역불평등 해소 및 문화민주주의 확대 전략으로서의 지역문화정책 활성화 방안'을 발제한 임정희(연세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편차가 매우 커서, 문화를 지역사회 핵심적인 발전전략으로 삼아 기존 틀을 깨고 문화정책영역을 과감하게 확장하는 곳도 있지만, 문화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곳도 허다하다"고 진단하고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은, 많은 수의 지자체의 문화정책이 산업사회를 넘어서는 세계사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러한 변화과정에서 야기되는 지역민들의 새로운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입안이나 집행, 평가 등에 다양한 층위의 지역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고 설득 · 조정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 마련에도 소극적인 점을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 수용"

임 교수는 이어 "지역문화정책의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실천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생활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여건, 생활환경, 생활양식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지역문화의 자치화 · 자립화 △지역문화의 개성화 · 특성화 △지역문화의 다양화 · 다원화"가 지역문화정책의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본성을 살리는

임 교수는 이어 "지역문화정책의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실천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생활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여건, 생활환경, 생활양식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지역문화의 자치화 · 자립화 △지역문화의 개성화 · 특성화 △지역문화의 다양화 · 다원화"가 지역문화정책의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것이어야 하고, 사회에서 생활문화/일상문화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적 담론들이 생산되도록 건전하고 안전한 토대들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이원재(문화연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문화산업정책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국민의 정부 문화산업 관련 정책은 문화산업 정책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채 맹목적인 자본, 기업, 시장 중심의 지원 체계 강화는 정책의 공공성, 효율성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지적하면서 "참여정부는 '문화사회라는 국가 비전'과 '문화민주주의라는 국정 원리'가 문화 관련 산업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임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문화 지원은 특성 우선 고려"

이원재 실장은 △정책의 공공성 취약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정책간의 연계성 미확보 △주관적 근시안적 추상적 정책 입안 반복 △정부 부처간 업무 중복으로 예산 낭비 및 사회적 혼선 가중 △평가 시스템이 부재로 인한 정책적 효율성 저하 △선심성 예산 나눠주기의 한계 노정 △기업 운영 · 유통체계의 비민주성 비효율성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 부족 △과도한 규제 잔존 등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이 실장은 "△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철학 및 지원 방향 재조정 △문화산업 관련 조직의 개편 및 기능 조정을 통한 지원체계 수립 △문화산업 정책과 기타 정책간의 연계성 강화"를 제안하면서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은 중앙 정부 중심의 일괄적 추진보다는 지역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사전 연구 및 조사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 / 박전걸 기자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 · 관광분야 정책토론회

문화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재정 운용계획에 관한 세미나가 열려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 6월11일(수) 한국관광공사 TIC상영관에서 열린 이 세미나는 기획예산처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박인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문예진흥원 이사) 기획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첫째 발제자로 나선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은 '문화관광분야의 중기 재정계획의 기본방향' 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심원장은 "문화와 경제의 융합시대를 준비한 국민의 정부 문화부문 재정투자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확충과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문화기반시설사업의 투입 대비 효과성의 불투명성, 국제영화제의 난립과 지역의 소모성 행사 남발문제, 문화산업의 유통구조, 전문인력 인프라 취약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바탕 위에 참여정부의 문화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인 동북아 문화중심 국가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혁신 및 지식문화강국의 실현책으로 창의력, 상상력, 판단력, 감수성의 함양을 축으로 한 문화교육으로의 확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문화컨텐츠 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뉴미디어 환경의 문화컨텐츠 개발"

그는 또 재정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정홍보처, 외교통상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협력 및 조정이 필요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포함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조정까지도 검토하는 제도 개선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광렬(한국문화관광정책연

"분권화시대에는 문화예술진흥업무가 중앙정부의 역할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나 지역의 균형발전, 국가 정체성 제고를 위한 사업 이외의 문화예술진흥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예술분야 중기 재정투자 방향' 이란 주제 발표에서 "성과 지향적 문화재정 운용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문화예술부문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지원에서 투자로 전략적인 관점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분권화시대에는 문화예술진흥업무가 중앙정부의 역할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나 지역의 균형발전, 국가 정체성 제고를 위한 사업 이외의 문화예술진흥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그는 이어 전국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광부와 문예진흥원의 역할분담문제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등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조직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체계도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직간 역할 분담과 조정 시급"

또 재정투자의 방향으로는 기존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 등 각종 유휴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적인 문화인프라의 확충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하는 한편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가족단위, 소그룹, 주말 · 주중 프로그램이 자생적으로 공급되도록 초기에 민간의 진입을 쉽게 하고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 등에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구문모(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실) 실장은 '문화산업 문야 중기재정투자 방향' 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 진흥정책을 보면 정책금융의 비효율적 집행과 투자조합 자금유치 인센티브 부족을 비롯해서 핵심소재 개발 및 소

재가공 능력부족, 통계 인프라 구축 미흡, 해외 고급인력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미흡 등 부족아니 미흡 일변도의 실적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보다 확실한 정부역할의 정립이 필요하고 산업의 장기적인 자생력을 부여하기 위해 기반시설 제공에 역점을 두고 국고 및 기금의 일부를 투입함으로써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술개발과 핵심소재 개발 및 소재가공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함은 물론 특히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편향되어 있는 문화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은 지방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으로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휴종(추계예대 문화산업대학) 교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너무 단면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펴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 배분이 바람직하다"면서 "우리의 인력은 5년 미만인데 외국의 경우 2~30년 이상의 인력이 많다고 한 것은 우리는 그만큼 정책이나 기업에서 하는 일들이 일관성 결여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이 세워졌으면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중장기 일관된 정책과 예산 집행"

또 이흥재(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은 "문화적인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문화국가 프로젝트' 라는 것을 제의"하겠다면서 "문화예술의 국제진출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의 컨텐츠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문화정보화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문화국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창조자 지원 방안으로 예술인 복지제도의 도입과 문예진흥기금의 활용, 국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해 문화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보험제도는 정신적인 건강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 주는 감성산업시대에 필요한 인력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라고 보아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입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산업 진흥정책은 중장기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고려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와 기술로서의 디지털 산업, 게임, 음반, 출판 등 여러 가지에 대해 각각의 전략도 수립돼야 한다는 견해이다.

"백 예술국장, 문화예술인 창작인프라 구축을 필요"

한편 문광부 백 익 예술국장은 "문화예술인이나 학자들 모두 문화적 마인드를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문화정책과 방향이 설정되기는 어렵다"면서 "90년

대를 넘어 오면서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문화예술인들도 자기 자신의 영역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의 인식변화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아직도 시설투자냐 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국장은 또 세계화시대에 우리 문화를 해외에 충분히 알림으로서 문화국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면 우리문화 세계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반조성책으로 우리 문화의 전초적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외 주재 문화원의 기능이나 시설규모를 강화함은 물론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의 종합적인 전초기지로서의 센터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문광부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의 비율에 연동함으로서 보조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겠다고 표명했다.

"국고출연과 로또기금 배분 검토 중"

이성원 문광부 문화정책국장은 "문화를 돈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화정책은 비전이나 계획에 따라 얼마나 돈을 잘 쓰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재정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기금 모금폐지가 준조세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극장모금이 중단된다마는 이에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국고출연이나 로또 수익금 배분 등이 예산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어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응선(매일경제 수석 논설위원) 위원은 "인프라, 하드웨어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최근 공주박물관의 경우에서 보듯이 왜 그것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정부가 운영해야 하는가" 반문하면서 "투자구조면에서 1회성 행사가 28%로 낭비요인이라고 했는데 주최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택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창작자 · 공급자 지원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져야 한다"면서 "순수문화예술은 대중보다 항상 앞서 가 있기 때문에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마음놓고 그들이 창작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 그는 또 교육부가 이 분야에 신경을 안 쓰니까 문광부 내에 문화교육국이라도 만들어서 어린이부터 문화교육을 시켜야 순수문화예술이 살아난다고 제안했다.

"문화산업 특별한 관심 있어야"

조창희(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보조금이 거의 없이 투자와 융자라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산업이 기초산업이고 기초단계로 너무 영세하니까 신용담보로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데 또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문화사업은 분야가 넓기 때문에 부침이 잦아서 새로운 장르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적어도 2~30년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나온다면서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은 상호작용관계로 문화산업이 순수문화예술에 소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리 / 채강희 주간

회의도 경쟁력이다

새해 초가 되면 전국 문화원마다 정기총회를 갖는다. 이 때 총회의 소집절차와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후유증은 예상외로 크다. 어떤 회의에서건 의결과정이 다소의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의사진행이 매우 중요하다. 총회는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준비하고 진행하며 엄정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중심으로 회의전문가의 견해를 '용어해설' 형식으로 싣는다.

〈편집자〉

회의자문 동우에쓰엔씨 대표 글 · 김점동

■문화원을 구성하는 기관

문화원의 기관으로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총회가 있고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 원장, 사무국이 있으며 이사회의 운영,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감사기관으로서의 감사(監事)가 있다.

■총회

총회는 문자 그대로 재적구성원 모두의 모임이다. 문화원의 총회는 재적회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출석해서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록 이해관계나 입장 · 의견이 다를지라도 민주적인 표결행위로써 의사를 결정하여 총회에 참석한 회원이나 불참한 회원이나 모두가 총회의 결정에 따름으로써 다시 하나되는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총회는 뭐든지 의결할 수 있나?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지만 만능기관은 아니다. 아무리 총회의 의결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총회에 출석한 회원 100%가 찬성해 제출한 안건이나 또 이를 100%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는 의결을 했다면 이는 취소 내지는 무효라는 것이다. 또 총회는 어디까지나 문화원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효력은 해당 문화원에게 미치며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상설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총회가 할 수 있는 기능

총회의 기능은 표준정관 제24조에 의하면 임원선출 ·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표준정관 제20조제2항에 의거,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총회와 이사회 기능과의 차이점

이사회는 정관에 바탕해 기능한다

이사회는 따로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정관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기능해야 한다. 물론 이사회운영규정을 정할 때에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이어야 할 것이다.

·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기능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한 이사회의 기능은 표준정관 제30조(이사회의 기능)에 있는 업무의 집행 · 사업계획의 운영 · 예산결산서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변경 · 재산관리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는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입회 승인 · 회원의 상벌 · 임원의 사퇴 승인 · 고문, 자문, 운영위원의 추천 및 동의 · 사무국장의 임면 동의 ·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 결정 · 본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본원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사회에서의 이사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의 이사회 의결권은 어떤 방법으로도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한 출석수 자체에 산입(算入)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면의결이나 대리출석과 같은 편법이 가끔 있기도 하나 이는 위법이다. 이사회 개최 방법에 전화나 화상을 이용한 이사회 개최가 요즘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이 관련 조항을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 총회와 이사회의 권한분배 원칙

총회의 권한은 이사회에 넘길 수 없고, 이사회의 권한은 총회에 넘길 수 없다는 것은 권한분배의 원칙에 의한다. 이렇게 권한을 배분한 것은 문화원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인 총회와 이사회 상호간의 업무영역을 확고히 하고 기관 상호간의 효율적 운영과 견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권한분배의 질서는 매우 중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하지 못했다거나 할 수 없는 사안(권한)을 이사회로 위임할 수 없다. 총회를 연기하거나 다시 총회일을 정해 총회 소집절차를 밟아 미결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 참고

문화관광부 2001년 7월 12일자 공문 "○○문화원장 선거관련 질의회신"에 의하면 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시행하고자 했으나 "선거관리규정"은 총회의 기능인 "임원선출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가 있음을 볼 때 이사회가 처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 심의와 결정을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상정하는 신중함도 필요할 것이다.

□ 총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나?

· 회원

표준정관 제20조 항에 의하면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 대의원

표준정관 동조 ②항은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대의원은 70명 내외로 하고 회원 중에서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

출한다"고 되어 있다.

· 회원과 대의원

여기서 총회의 구성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원과 대의원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지만 본 조항 이외의 표준정관 어느 조항에도 대의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총회의 성립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의원으로 선출이 되면 언제까지 권리행사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임기 규정이 없다. 가령 몇 년간에 걸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은 어디까지나 '회원'이라고 볼 때 상호 모순을 안고 있다. 그렇지 않고 매번 대의원제를 채택한다면 회원에 의한 총회와 대의원에 의한 총회가 중복되므로 의미가 없다. 더구나 표준정관 제23조(의결정족수)에서는 총회의 개의요건을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요건을 "출석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명문화하고 있어 대의원의 역할은 총회에서의 개의와 의결에 아무런 권능도 없다.

또한 정관변경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정관 제45조의 규정과 같이 총회에서 "재적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요건을 강화시켜 놓고 있지만 "재적구성원"의 정의를 명확히 밝혀 놓거나 표현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과연 대의원으로만 구성된 문화원의 정기(임시)총회가 정관 제24조의 총회의 기능 즉, 부의 안건들을 심의 · 의결할 수 있는지도 언급이 없다. 이를 해소하자면 최소한 정관에 총회의 구성원은 "회원(대의원을 선출한 경우는 대의원)"이란 규정을 삽입해 조문을 정비하면 공연한 시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대의원에 관한 언급은 문제제기 차원이며 여기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아 규정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보류한다.

□ 재적수 및 의결권수 계산

총회는 자격 있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총회 개의는 재적회원 즉, 총회에 출석해 질의응답, 토론 참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바 먼저 회원의 자격이 있는가에 따라 재적수를 계산하고 의결권수를 계산할 수 있다.

자격 있는 회원이라 함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말하고 이들로써 총회의 재적수를 계산하고 의결권수를 계산한다.

따라서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당했거나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해당되는 회원을 제외하고 회원은 누구나 재적수로 계산하고 의결권수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회원의 의무사항인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표준정관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한 회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이러한 정리대상 회원을 해소하자면 총회 개최에 앞서 정확한 이사회 결의를 해두어야 한다. 그 외 고문과 자문위원, 운영위원, 관계공무원일지라도 회원이 아니면 재적수와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회원일지라도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 안건에 있어 토론, 의견진술 등의 권리는 있으나 의결권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시에는 재석수(출석수)와 의결권수에서 제외한다.

□ 민감한 총회는 접수도 민감하게

회원이나 대의원이 총회장에 입장할 때 다소의 시간지연을 감수하더라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

록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위임장 소지 유무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 회원의 증명과 위임장의 확인

회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회원명부와 신분증(회원증)의 대조가 필요할 것이며 매우 민감한 안건의 상정시에는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소집통지안내문에 공시하고 접수시에도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하자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 위임은 1인에 한해 회원에게만

또한 위임은 회원 상호간에 1인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회원 여부 확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표준정관과 달리 위 "1인에 한하여"라는 단서가 없는 경우도 "1인에 한하여"라는 명문에 구속된다. 따라서 한 회원이 2인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경우 1매 이외는 무효화되어 출석수와 의결권수에서 제외한다.◔

〈다음호에 계속〉

용어의 정의

□ 사회자(司會者)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사회자이다. 따라서 일반 회의체에서의 사회자는 의장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간혹 진행자를 가리켜서 사회자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혼식이나 방송프로그램 등에서 쓰이는 사회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의장이 사회자이다.

□ 과반수(過半數)

문화원의 경우는 수적 개념이 사람 수이므로 반수(半數)는 50%, 과반수는 50%+1人을 의미한다. 물론 표결 결과 숫자가 애매해 찬성률이 50.1%에 달해도 과반수 찬성이다.

용어상에서 "과반수를 초과한다, 과반수가 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의 중복이며, 의결 선포시에 아무리 많은 수가 찬성 또는 반대를 했더라도 의결요건이 과반수인 이상 표결 당시의 확정 의결권수를 공표하고 그 표결 결과인 찬·반수와 무표수를 밝힌 다음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제○호의 안 ○의 건이 원안(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함으로써 정확한 의결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 3분의 2 이상

3분의 2에 달하면 되는 수(數)이다. "3분의 2" 그 자체이며 마이너스 개념이나 플러스 개념이 없다. 30명이 출석했으면 20명이 3분의 2이고 의결정족수에 달한 것이다.

21명도 3분의 2이상이다. 32명의 "3분의 2 이상"은 21.34명(66.67%) 이상이다. 의결 선포시에 "3분의 2 이상에 달하였으므로 제○호의 안 ○의 건이 원안(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함으로써 정확한 의결요건을 갖추게 된다.

□ 재적(在籍)회원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특정한 일자를 기준해 이사회에서 확정한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원을 말한다.

□ 출석(出席)회원

회원자격 확인을 거쳐 총회장에 입장한 회원(위임회원 포함)을 말한다. 통상 일반명사인 참석(參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나 회의체에서는 회원만이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 회원자격이 없는 내빈 등은 참석으로 표기한다. 국회에서도 국회의 출석요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나와야 할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은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으로 표기하고 그렇지 않은 국무위원이나 개회식 등에 내빈으로 참여한 대법원장 등은 "참석자", "기타참석자", "내빈참석자" "참석의원" 등으로 표기한다. 개회식과 같이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집회의 경우도 "참석"으로 표기한다.

□ 재석(在席)회원

의결을 위해 출석회원수를 확정하는 시간현재 총회장 내에 있는 회원(위임회원 포함)을 말한다. 재석회원수가 확정되면 이를 출석회원수로도 표현하나 표결에 필요한 정확한 용어는 "재석회원수"이다. 또 늦게 출석한 회원이라 할지라도 정식의 서면표결(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마감 선언이 있기까지는 표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도 재석회원수에 합산된다.

註) 이 원고는 사전적 의미를 쉽게 풀어쓰고자 한 것이므로 전적 표현과 다소 다를 수 있음.

청주문화원 박영수 원장과의 대화

"참여와 체험, 시민속의 문화원으로"

"월드컵 때만 문화시민운동 합니까. 중단없이 계속해야만 해요. 문화원이 향토문화진흥도 해야하지만 성숙한 문화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앞장 설 수 있는 여건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주문화원 박영수(朴永洙 · 65) 원장은 수필작가답게 도덕적 해이가 이 시대의 가치관 혼돈을 초래했다며 문화사회건설은 인간성 회복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독특한 지역고유의 문화창출은 시민들의 참여와 체험을 통해 접근해야 하고 그 힘이 문화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문화원이 바람을 일으키는 풍구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박원장은 '명예직'이 아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무한 봉사직'이 문화원장임을 역설한다.

평생을 교단과 대학의 출판 · 홍보에 바쳐온 그는 3년 전 정년퇴임하면서 곧바로 문화원장을 맡았으며 지난해부터는 충북도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문화원장은 풍구잡이

아침등산을 즐기며 전국의 높은 산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는 그는 탁월한 유머감각으로 청주대 평생교육원 수필강좌반을 비롯, 대학원 고위과정, 여성회관, 노인대학 명강사로 분방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아침등산에서 얻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박원장은 청주시민의 정서가 묻어 있는 '무심천 살리기'를 위해 간소복 차림으로 현장을 누비면서도 자신을 만년청춘을 구가하는 청주문화 풍구잡이에 견주는 등 무척 신명이 나 있었다.

청주는 중원문화의 중심지

■ *청주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충청북도 즉 중원문화권의 중심도시로 일찍부터 교육문화의*

고장으로 불리어왔습니다. 청주문화의 특성이랄까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멋과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청풍명월의 정서, 양반 · 선비적 기질이 청주문화의 정체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 · 지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 중심 한 복판이고 오랫동안 삼국(고구려 · 백제 · 신라)의 각축장이 되었던 까닭에 서로 다른 문화를 융합 · 절충 · 조화시킨 혼합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산재한 많은 문화유산들이 백제는 백제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공존하면서 아주 독특한 빛깔을 내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문화유산은?*

"두말할 나위 없이 '직지(直指)' 입니다.
금속활자로 인쇄해 낸 책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0여 년이나 앞섬)인데요. 이 책을 찍어낸 곳이 바로 청주 흥덕사(興德寺)이거든요. 그래서 '인쇄문화의 발상지' 청주에 살고 있다는 시민들의 자긍심이 대단하지요.
'직지'는 2년 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흥덕사터는 오래 전에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고인쇄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세히 소개되고 해서 요즘 전국 방방곡곡에서 관람들 많이 오십니다. 구경 한 번 오시지요."

■ *'직지'는 현재 상 · 하권 중 하권 한 권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전해진 책이 없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껏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민 · 관이 똘똘 뭉쳐서 범시민적으로 '직지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인간문화재 금속활자장 오국진 선생이 상 · 하권을 고인쇄 기법으로 복원해 내는 등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창조정신을 다각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 출범이후에도 우리 문화원 위상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21세기 문화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구현해 나가는 방법은 부단히 개선되고 진보되어야 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문화원에 부여된 제1의적 사명인 민족문화 ·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존 · 전승사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문화시민사회 쾌적한 문화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를 우리 문화원이 앞장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

◇ 박원장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기행' 책 때문에 홍역 치러

■ *청주문화원의 좌표라고 한다면?*

" '청주문화사랑' 입니다.
금년도에는 '참여와 체험' 이란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 속의 문화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 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우선 회원과 후원인 모집 · 관리를 통한 자체 예산의 비약적인 확충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던 3년 전만 해도 자체 예산이 제로 상태에서 지난해는 4천8백만원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천만원이라는 돈 문제보다 그만큼 저희 문화원이 많은 분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청주문화지킴이상 시상, 청주문화유산 탐방 시티투어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요. '청주문화' '청주문화기행' 등 출판사업도 잘된 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 *향토사연구저서인 '청주문화기행' 이 대히트를 쳤다고 들었는데요.*
"작년에 향토사연구를 학구적인 전문성 추구에서 다소 벗어나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주문화기행' 이라는 문화유산 소개책자를 냈는데요. 이게 중앙일간지까지 좋은 책이라고 보도가 나간 뒤에 며칠동안 그야말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책을 구하려는 시민들의 전화가 너무도 많이 오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이걸 재판을 찍어 판매해볼 생각으로 욕심을 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으로 얻어진 수확물을 상품화 할 수 없다는 제약에 부딪쳤고 결국 시 당국에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발간비를 지원해 주셔서 7월 1일에 증보판을 출간했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려야죠."

■ *금년도 역점사업은?*

"올해 저희 문화원 원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독립 원사는 고사하고 방 두칸 15평 규모의 셋방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청주시 당국에서 이러한 문화원의 사정을 살펴 130평 규모의 시민회관 별관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사비용도 1억 책정해 주고, 또 저희 문화원 가족이 성금을 좀 모으고 해서 올 가을에 새 보금자리에서 면모를 일신해 보려고 합니다."

■ *연합회 도지회장도 겸임하고 계신데 도지회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주십시오.*

"작년에 도지회장을 맡으면서 충북지사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원지회도 예총지회와 동일한 규모의 특별사업비를 달라. 더욱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 아니냐, 했더니 예총과 중복되지 않겠느냐 하고 난색을 표명해요. 그래서 문화원은 문화사업만 하고 예술행사는 예총, 이렇

게 역할분담을 하면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아 도내 중고생 향토유적 순례대행진과 학생국악경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도지회에서는 1개 문화원이 하기 어려운 도 단위 문화사업, 도지사가 도정지표에 입각해서 특별히 위탁하는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지회 사업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장은 명예직이 아니다

■ *이번에 사무국장들 처우가 개선이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문화원장들은 명예직 그대로인데 원장님들의 위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저는 문화원장들을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는 데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해에 억대의 예산을 문화원장 책임 하에 집행하고 있는 법적인 책임자가 어떻게 '명예직'이란 말입니까. 저는 문화원장이야 말로 봉사의 사명이 투철한 지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명예직'이 아니라 '무보수 봉사직'이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우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도지회장으로서 연합회에 건의드릴 말씀은?*

"전국문화원연합회 도지회라고 한다면 우선 연합회에서 도지회예산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지회란 명칭 외에 '충북문화원연합회'란 명칭도 함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을 비롯한 지방문화원 종사자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가 좀 늘어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총에도 간여하였고 수필작가로 작품집도 내시고 상도 받으셨는데 요즘 작품활동은?*

"문화원 일에 제 모든 열정을 쏟다보니 작품 활동은 저조한 편입니다만 내년쯤 두 번째 수필집을 내려고 틈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생활철학이나 좌표로 삼고 계신 덕목은?*

"저는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노래한 사무엘 울만의 시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불타는 의지, 뜨거운 정열, 두려움을 물리치는 모험심을 갖는다면 70세라도 청춘'이라고 한 그의 시를 신봉하면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 *앞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일은?*

"현재 1년에 1회 발간하고 있는 종합지 '청주문화'를 계간(季刊) 정도로 격상시켜서 시민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전하면서 개설하는 향토사 자료실을 계속 확충시켜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향토사도서관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해외문화원과의 교류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정리/편집부

"행동방식 규정하는 질서가 필요"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는 7월의 문화인물로 사계 김장생(1548~1631) 선생을 선정, 발표했다.

김장생 선생은 조선 중기의 정치가, 예학사상가.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제자 중 대표적 학자로 이어받아 조선 예학을 정비하였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의 국가정신과 사회발전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선생은 13세 때부터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에게 사사했고 20세 무렵에 율곡 문하로 들어가 학문을 익혔다. 31세 때 관직을 시작, 주로 지방관을 역임하여 단양 · 남양(南陽) · 양근(楊根) · 안성 · 익산 · 철원 부사 등을 역임했으며, 인조 반정 이후 동지중추부사 · 행호군 등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번번이 사양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노령임에도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의 직함으로 의병을 모집하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데 앞장섰다.

김장생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란을 겪는 와중에도 학문연구에 몰두해 「가례집람(가례집람(家禮輯覽)」「상례비요(喪禮備要)」「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경서변의(經書辨疑)」 등이 있고, 별세한 뒤에 「사계유고(沙溪有故)」가 간행되었다. 연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 등에 제향되고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정치는 사회조화를 성취하는데 최우선"

선생이 한결 같이 예론(禮論)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모든 인간이 어질고 바른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행동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질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기에 「조선왕조실록」에서 김장생은 "고금의 예설(禮說)을 취하여 뜻을 찾아내고 참작하여 문명하게 해석했으므로 변례(變禮)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질문하였다"고 기술돼 있다.

김장생은 예가 다스려지면 국가가 다스려지고 예가 문란해지면 국가가 혼란해진다고 하여, 예(禮)를 국가 치란(治亂)의 관건으로 보았다. 김장생의 정치사상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란 인간사회의 조화를 성취한다는 목표가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가르쳐 예절 바르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예교(禮敎)와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정치(政治)을 일원화시킨 정치사상가이다.

오늘처럼 예(禮)가 땅에 떨어지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대사회에 김장생의 일관된 사상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선생은 인조 반정 이후 득세한 집권층의 집요한 벼슬 제수에도 전혀 움직이는 바 없이 오직 학문의 길에 몰두한 그의 고고한 정신은 오늘의 우리 정치판에 던지는 위대한 교훈이라 하겠다.

글 · 박전걸 기자

읽을 만한 이 달의 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23일 제6차 서평위원회를 열고 '7월의 읽을 만한 책' 으로 『신화를 삼킨 섬(1,2)』(이청준 지음, 열림원 펴냄)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문학, 역사, 철학, 정치, 경제 · 경영, 사회, 과학, 예술, 교양, 아동 등 10개 분야), 발표했다. 이 중 4종을 소개한다. (편집자)

신화를 삼킨 섬(1,2)
이청준 지음
열림원/각 8,500원

이청준의『신화를 삼킨 섬』은 5 · 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제주도를 무대로 삼은 소설이다. 이러한 제주도를 배경으로 작가는 역사와 신화와 현실의 상호관련성을 탐구하면서, 권력의 억압과 폭력 속에 희생된 개인의 진실과 자유의 문제를 천착한다. 이 장편소설은 그 어느 때보다 대가다운 작가의 원숙한 문학적 경지를 보여주는 한편, 우리의 삶과 역사에 대한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 추천인 : 오생근(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길
박이문 지음
미다스북스/8,500원

그는 수련을 통해 이러한 철학에 익숙해졌지만,기질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이 그가 물리적 세계로부터 환경적 세계로,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삶의 세계로 끊임없이 옮겨 온 이유였다. 이것이 또한 그가 노년에 이르러 고국에 돌아 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가 탄 배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기나긴 여로에 동행할 수 없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노 철학자의「길」에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인 : 엄정식(서강대 철학과 교수)

386세대, 그 빛과 그늘
한상진 엮음
문학사상사/9,500원

이 책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한상진 교수가 담당한 '사회학개론' 같은 대형강의를 듣던 수강생들,다시 말해 386세대에 속하는 학생들이 당시에 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보고서들 중에서 극히 일부를 편집한 이색적인 책이다. 이 책의 글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좌절의 시대를 당시의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들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다.

★ 추천인 : 이정복(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침묵의 음악
안드레아 보첼리 지음 · 이현경 역
황금가지/11,000원

청아한 목소리로 청중을 매료시키는 세계적인 테너 보첼리는 12살에 시력을 잃었다. 보첼리는 끝없는 인내와 불굴의 정신으로 그것들을 다시 맞췄다. 이 자서전에서 보첼리는 자신에게 닥친 운명과 그것을 헤쳐온 과정을 담담하게 들려준다. 장애인으로서의 회한이나 탄식은 찾아볼 수 없고, 표현 역시 눈뜬 사람보다 명징해 오히려 가슴을 울린다. 침묵과 맞선 그의 집념과 함께 오늘의 보첼리를 만든 가족과 친지, 학교와 사회의 배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 추천인 : 정중헌(조선일보 논설위원)

전국문화원연합회 시 · 도 지회 현황

지회명	지회장	주소	전화	팩스
서울시지회	김영섭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2-12	02)2214-9084	2241-9301
부산시지회	정연구	동래구 명륜2동 137	051)555-1441	550-4988
대구시지회	노영하	동구 신천3동 107 상공회의소 703호	053)774-7950	774-7951
인천시지회		중구 송학동 1가 11	032)765-0267	773-2711
광주시지회	강명보	북구 우문동 200	062)527-1991	527-7702
대전시지회	류해상	대덕구 중리동 252-8 SK주유소 2층	042)637-7517	637-7508
울산시지회	이두철	남구 옥동 156-3	052)258-0574	229-7954
경기도지회	김종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경기문화재단)	031)239-1020	239-3785
강원도지회	이대근	춘천시 소양로2가 162-1 원준빌딩 4층	033)255-5105	255-5107
충북도지회	박영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2 (청주문화회관내)	043)256-3624	253-7246
충남도지회	민병달	천안시 성정동 694-9	041)575-3004	577-3004
전북도지회	김병학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104-5(전북예술회관 3층)	063)287-5509	287-7509
전남도지회	오용갑	광주시 동구 대의동 53 남도예술회관 2층	062)223-0019	232-7039
경북도지회	이만희	상주시 남성동 118-1 상주문화회관	054)535-2339	531-2339
경남도지회	박현효	창원시 상남동 43-2 시민생활체육관 6층	055)284-8870	266-2729
제주도지회	양중해	제주시 삼도2동 1262	064)752-0302	722-0203

『우리문화』 편집위원

◆ 신 찬 균
불교TV문화원 고문

◆ 김 종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장

◆ 전 택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이 종 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

◆ 이 흥 재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전국문화원연합회 임원 현황

(2003. 7. 10 현재)

직 위	성 명	전 화	비 고
회 장	권 용 태	(02)704 – 2311	서울 강남문화원장
부회장	이 영 철	(02)905 – 4026	서울 도봉문화원장
부회장	김 종 기	(031)244 – 2161	경기도지회장
부회장	고 경 재	(033)671 – 8762	강원 양양문화원장
부회장	조 남 식	(061)351 – 3255	전남 영광문화원장
부회장	이 창 교	(054)555 – 2571	경북 문경문화원장
이 사	백 익	(02)3704 – 9500	문화관광부 예술국장
이 사	김 영 섭	(02)2241 – 9300	서울특별시지회장
이 사	정 연 구	(051)555 – 1441	부산광역시지회장
이 사	노 영 하	(053)255 – 5123	대구광역시지회장
이 사	강 명 보	(062)527 – 7701	광주광역시지회장
이 사	류 해 상	(042)627 – 7517	대전광역시지회장
이 사	이 두 철	(052)229 – 7953	울산광역시지회장
이 사	이 대 근	(033)254 – 5105	강원도지회장
이 사	박 영 수	(043)733 – 5588	충청북도지회장
이 사	민 병 달	(041)575 – 3004	충청남도지회장
이 사	김 병 학	(063)547 – 4659	전라북도지회장
이 사	오 용 갑	(061)244 – 0044	전라남도지회장
이 사	이 만 희	(054)535 – 2339	경상북도지회장
이 사	박 현 효	(055)284 – 8870	경상남도지회장
이 사	양 중 해	(064)722 – 0203	제주도지회장
이 사	남 선 우	(031)781 – 1020	경기 성남문화원장
이 사	정 정 희	(041)354 – 2367	충남 당진문화원장
이 사	이 복 웅	(063)451 – 2138	전북 군산문화원장
이 사	김 상 수	(055)963 – 2646	전남 함양문화원장
이 사	신 봉 승	(02)723 – 1004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감 사	한 만 규	(031)883 – 3450	경기 여주문화원장
감 사	김 희 규	(061)473 – 2632	전남 영암문화원장

전국문화원연합회 고문 · 운영위원

(2003. 7. 10 현재)

직 위	성 명	비 고
고 문	이 수 홍	한국문화협회장
운영위원(위원장)	장 수 봉	충북 충주문화원 고문
운영위원(부위원장)	신 중 식	서울 송파문화원장
운영위원	최 정 학	인천 연수문화원장
운영위원	한 전 기	대구 팔공문화원장
운영위원	김 종	광주 서구문화원장
운영위원	이 용 우	경기 하남문화원장
운영위원	이 만 희	경북 상주문화원장
운영위원	김 수 진	경북 군위문화원장
운영위원	이 종 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